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13호 2026년 03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55, 310호 (정훈빌딩)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외국인주민도 설 의미 배우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해요"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맞이 전통놀이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가족 약 250명이 참여해 설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가족센터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명절 때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 28면〉 송하성 기자

법무부,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여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 부모를 둔 아이들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일 때 입국했으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고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6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고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요. 이 제도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시행돼요.

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부모의 경우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어요.

이 때문에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어요.

이에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 또는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2월 26일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그간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어요. 먼저 지난해 2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제도가 종료될 상황에 이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한 것이에요. 이러한 노력 끝에 법무부가 기간 연장을 결정했지요. 외국인주민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에요.

또 한가지 중요한 노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20개 언어로 제작·발송한 것이에요.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요.

〈중국어 25면, 베트남어 6면, 태국어 25면, 영어 15면〉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시흥 11 구리 12~13 평택 14~18 과천 19 광주 20~22 양평 23 광명 24~27 성남 28~30 용인 31 김포 32~36

중국어 中文 21, 25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6, 13 러시아어 Русский 2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25 영어(English) 5, 15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2, 3, 8, 9, 22, 32, 35 나의 학습 My Study 16, 17, 19, 29 보건 Health 21, 24 이주배경청소년 25, 30 외국인근로자 3 도서관 Library 19 육아 Child Care 2 여가 Leisure 10 교육 Education 14, 23, 28 미등록 아동 1, 6, 15, 25 인권 Human Rights 5, 6, 13, 21 국제교류 4, 7 마약예방 15, 33 출입국 Immigration 33

취약계층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청소년 참가자 모집

경기도, 4월 9일까지 해외연수·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105명 모집



경기도가 오는 4월 9일까지 '2026년도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참가자 105명을 모집한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현지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으로, 2024년 처음 시작됐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숙식비, 교육비와 사전·사후 교육 등 전 일정에 필요한 비용 전액(여권 및 비자발급비용 제외)이 지원된다. 사전 교육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며, 현지 적응 훈련과 자기 계발 계획 및 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연수 이후에는 성과공유회, 진로 탐방 등 사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한, 해외연수 종료 후에도 '청소년 온라인 학습코칭'과 연계해 1:1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등 참여 청소년이 스스로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청소년이다. 올해는 2009~2011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4월 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1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약 3주간 캐나다에서의 해외연수, 현지 문화체험, 진로탐색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다리'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스스로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단순한 경험을 넘어 청소년들의 가능성이 구체적인 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지원자 466명 가운데 105명이 선발됐으며,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영어 수업,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박 4일 사전교육 성장캠프와 3주간의 해외연수 과정뿐만 아니라 청소년 온라인 학습코칭 연계, 국내 대학 진로 탐방 등 참여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추진됐다.

송하성 기자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접수

경기도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지원 사업 상반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는 총 1만34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가정에는 가구당 3만4천 원 상당의 교재·교구를 택배로 제공하며, 비대면 놀이교육 콘텐츠를 함께 지원한다. 희망 가정은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놀잇감과 심화놀이코칭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놀이코칭과 연계해 가정 놀이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신청은 취약계층 및 우선지원 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출생아 가정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 가정 등이다. 이후 일반 가정을 포함한 추가 신청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유호준 의원, 반복된 이주노동자의 사망, 경기도 장례 지원 제도화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 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 이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6월 아리셀 참사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장례절차와 유해본국송환, 유가족 입국절차, 한국체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아리셀 참사 당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장례 지원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족들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주노동자와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미 올해에만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안전 문제"라며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3월 8일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목사 고명진), 한국한센복지협회(협회장 이영찬)와 협력해 이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주민과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기관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민과 가족 55명을 비롯해 의료진 8명,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섬김위원 8명, 통역 자원봉사자 7명 등 총 78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다양한 검진과 진료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기초검사와 함께 인바디 검사를 통한 체성분 검사를 실시했으며, 혈액검사를 통해 총혈구 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신장기능 검사, 통풍 검사, 한센병 관련 항체 검사 등도 진행했다. 또한 폐 질환 확인을 위한 흉부 X-ray 검사와 골밀도 검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피부질환 및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 간단한 내복약과 외용약을 처방해 참여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진료와 검사 후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준비한 카드지갑을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바지, 마스크, 이불 압축팩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수원외복 관계자는 "이번 무료진료는 이주민과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고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1인가구 동네 네트워크 '우리동네 쏘옥' 거점 모집

수원특례시, 카페·공방 등 민간 공간 5곳 선정...1인가구 소통 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인가구의 일상 속 관계 형성을 돕는 동네 네트워크 사업 '우리동네 쏘옥'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참여할 민간 공간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쏘옥'은 카페·독립서점·공방·복합문화공간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가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목적과 공간 적합성 등을 고려해 5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거점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인가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거점은 공간 특성을 반영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네 기반 생활형 커뮤니티를 만들고 1인가구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를 회차당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수원시 1인가구 '쏘옥' 포털과 시 에스엔에스(SNS)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공간 운영자는 새빛톡톡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dlrbf177@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권선구 세권로 243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1층 수원시 가족정책과)을 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동네 쏘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동네 공간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해 1인가구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민간 공간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2219)

송하성 기자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강사 간담회 개최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2일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강사 간담회를 열었다.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강사 간담회는 문화다양성 교육 강사들이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 기관 추천 강사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방향, 강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사 보수교육도 진행했다.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문수경 객원교수가 '다문화 감수성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으로'를 주제로 ▲강사용 문장 템플릿 정리 ▲강의기법 이해 ▲현장 사례 롤플레이 ▲민감 이슈 대응 시뮬레이션 등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6월까지 구청 순회 찾아가는 우산수리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3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는 우산 수리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시민들의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는 서비스다.

3월 3~31일 지동창작마을센터(팔달구)를 시작으로 4월 1~29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권선구), 5월 4~27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영통구), 6월 1~30일 장안구청(장안구)을 순회하며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요일(공휴일 휴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생활 우산을 대상으로 1인당 2개까지 수리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일월수목원에서 이주민 시정홍보단 '다누리꾼'과 함께 지역 연계 스터디투어를 진행했다.

다누리꾼은 수목원 해설사 안내로 추천 탐방 코스를 둘러보고, 제라늄 품종 전시 '지금 우리는 봄'과 사막식물 전시 '극한의 정원, 이어지는 생명' 등 다양한 식물 전시를 관람했다. 시정 주요 소식을 공유하고 이주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례회의도 열었다. 참가자들은 수목원 탐방 내용과 시정 소식을 각국 이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누리꾼은 16개국 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주민 시정홍보단이다. 나라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정례회의, 현장 체험 활동 등을 하며 수원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행사에 참여한 한 다누리꾼은 "일월수목원에서 봄을 느끼며 수원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오늘 접한 시정 소식과 수목원 탐방 경험을 다른 이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누리꾼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참여해 수원시의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시정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이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통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모집해요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1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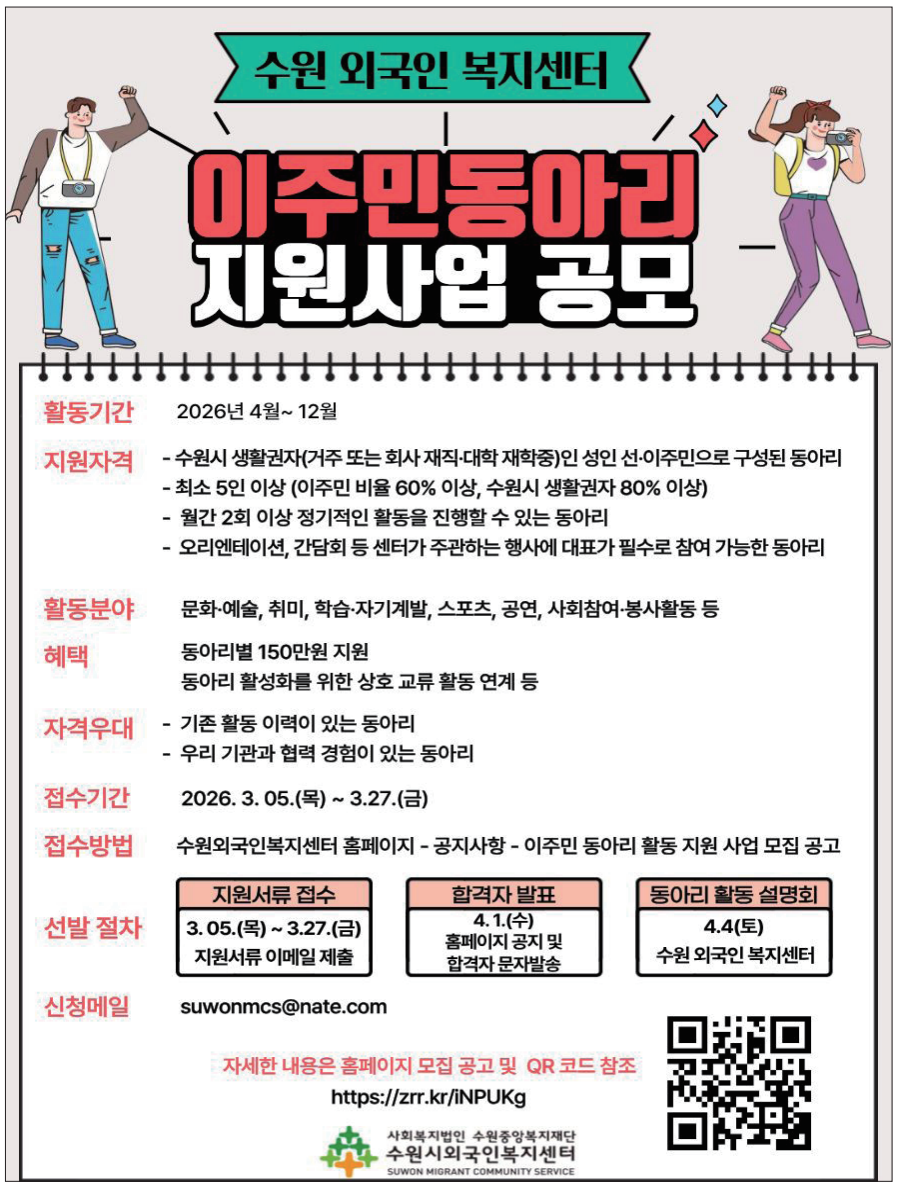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2026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 13기'를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은 관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시민 주도의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공공외교단은 ▲수원시 외국인 지역 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영문 블로그·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센터 국제교류 행사 지원 ▲화성문화제 서포터즈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4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8개월이다.

수원시 관내 대학 재학생 또는 수원 거주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이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총 16명을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swcic.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yeha25@swci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1365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 우수자는 향후 센터의 해외 방문 사업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국제교류와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226-3410

이지은 기자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면 '이민자권익보호관'에 신고해요

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해 눈길

이제 한국에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민자권익보호관'을 찾아 신고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한 사실이에요.

이에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총 147건 중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여 상정한 사례가 다수(135건, 92%)이고, 외국인 또는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소수(12건, 8%)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보호를 위한 기능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19명)을 새롭게 지정하여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외국인·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는 이민자권익보호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해서도 지방협의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 명의 다수(약 32%, 86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동포정책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에요.

〈중국어 21면, 베트남어 13면, 태국어 6면, 영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establish permanent counters dedicated to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ers at immigration and foreigner registration offices

Foreigners who believe their human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Korea can now report their cases to the Immigrant Rights Protection Officers at the Immigration Office or the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Chung Sung-ho) has decided to establish a dedicated reporting center to ensure the stable residence of foreigners and Korean nationals who have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human trafficking, wage arrears, and workplace harassment.

Foreign workers often struggle to access redress procedures due to their limited Korean proficiency, and effective redress options are limited.

Consequ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strengthen redress procedures to ensure stable residency. This includes receiving complaints and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foreigners and Korean nationals at dedicated counters at immigration offices and foreign detention centers nationwide, and submitting them to the "Foreigner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Rights Promotion Council."

The "Foreigner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Rights Promotion Council" is a public-private joint deliberative body established and operated in 2006 at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Headquarters,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 Office (offices), and 19 foreigner detention centers. The council deliberates on matters related to the stay in Korea, including changes to residence status, extensions of stay, and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outside of residence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or foreigners and compatriots who are undergoing relief procedures for human trafficking, wage arrears, or for humanitarian reasons.

However, of the 147 cases brought to the local council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majority (135 cases, 92%) were brought to the council by immigration officials who became aware of them during the course of their duties. Only a small minority (12 cases, 8%) were directly reported by foreign nationals or Korean nationals. The lack of a permanent reporting window has led to concerns that the system lacks human rights protection capabilities and requires improvemen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newly appoint 19 immigrant rights protection officers to the Immigration Office and the Foreigner Protection Center to establish a permanent window dedicated to receiving reports, and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reports can also be received through agents such as foreigner/compatriot support organizations.

Foreigners and Compatriots who have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may also request a local council review of permits and other matter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rom the Immigrant Rights Protection Officer.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Office and the Director of the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will respect the results of the review and take necessary measur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nd promoting the interests of Compatriots, who account for the majority (approximately 32%, or 860,000 people) of the approximately 2.7 milli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 Council has established a "Koreans Rights Subcommittee," comprised of civilian experts in Compatriots' policies, to address deficiencies.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continue to listen to the grievances of foreigners and Koreans who have suffered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dustrial settings and other areas, and to actively work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vide remedies for victims.

〈한글 기사 상단〉

PapayaStory

Bộ Tư pháp nỗ lực tạo môi trường cư trú ổn định nhằm hỗ trợ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lập và ổn định cuộc sống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

Bộ Tư pháp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đã mở rộng thời hạn cư trú để cha mẹ và người giám hộ của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ở lại Hàn Quốc đến khi trẻ bước vào giai đoạn thanh niên (24 tuổi), trong trường hợp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ừ nhỏ và đang theo học tại các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hoặc trung học phổ thông trong nước, đồng thời được cấp tư cách lưu trú hợp pháp.

Biện pháp cải thiện lần này chỉ áp dụ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không đăng ký tại Hàn Quốc được tạm thời cấp tư cách cư trú hợp pháp.

Chế độ này tạm thời cấp tư cách cư trú hợp pháp cho cả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ha mẹ trong trường hợp trẻ có cha mẹ cư trú bất hợp pháp, nếu đáp ứng đầy đủ 3 điều kiện sau:

▲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nhập cảnh khi còn là trẻ nhỏ (dưới 6 tuổi) ▲Đã cư trú tại Hàn Quốc từ 6 năm trở lên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trong nước hoặc đã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au 6 tuổi ▲Đã cư trú tại Hàn Quốc từ 7 năm trở lên ▲Đang theo học tại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trong nước hoặc đã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Nếu đáp ứng đầy đủ 3 điều kiện sau thì sẽ được cấp tư cách cư trú hợp pháp

Chính sách này sẽ được thực hiện đến ngày 31 tháng 3 năm 2028.

Trong trường hợp này,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tiếp tục cư trú tại Hàn Quốc ngay cả sau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Tuy nhiên, đối với cha mẹ, họ chỉ được phép cư trú đến 1 năm sau khi con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hoặc khi con trở thành người trưởng thành (19 tuổi).

Vì lý do này, đã có nhiều ý kiến cho rằng cần kéo dài thời hạn cư trú của cha mẹ, để trong thời gian trẻ đang học đại học hoặc học nghề, chuẩn bị tự lập, các em có thể tiếp tục nhận được sự bảo vệ và hỗ trợ từ cha mẹ. Vì vậy, Bộ Tư pháp cho rằng không chỉ bảo đảm quyền được giáo dục của trẻ em, mà còn tạo điều kiện để trẻ có thể ổn định cuộc sống hoặc tiếp tục học tập một cách ổn định ngay cả sau khi trưởng thành, nên việc mở rộng thời hạn cư trú của cha mẹ đến giai đoạn thanh niên của trẻ (24 tuổi) là phù hợp với lợi ích của trẻ em.

Do đó, Bộ Tư pháp cho biết biện pháp cải thiện này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ừ ngày 26 tháng 2.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cho biết:

"Những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ư trú lâu dài tại Hàn Quốc và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trong nước đã hình thành bản sắc về ngôn ngữ và văn hóa tương đương với người dân Hàn Quốc, và là một thành viên của cộng đồng xã hộ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tạo dựng môi trường cư trú và các chính sách phù hợp để những trẻ em này, sau khi trưởng thành, có thể thích nghi tốt với xã hội Hàn Quốc và đóng góp cho sự phát triển của đất nước."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หากคิดว่า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ตนถูกละเมิดสามารถแจ้งต่อ "ผู้พิทักษ์สิทธิของผู้ย้ายถิ่น" ได้

ขณะ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คิดว่า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ตนถูกละเมิดในเกาหลี สามารถไปแจ้งเรื่องต่อ "ผู้พิทักษ์สิทธิ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ที่อยู่ในสำนักงาน 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และศูนย์กัก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 จอง ซองโฮ) ได้ตัดสินใจจัดตั้งช่องทางรับแจ้งเรื่องเฉพาะเพื่อ รับ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และคุ้มครอง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มั่นคง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ที่ประส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เช่น 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และการกลั่นแกล้ง ในที่ทำงาน

ในกรณี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เนื่องจ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ใช้ภาษาเกาหลีได้ดี จึงทำให้เข้าถึ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พื่อคุ้มครองสิทธิได้ยาก และ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 มาตรการเยียวยาที่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ยังมีอยู่อย่างจำกัด

ด้วยเหตุ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จึงตัดสินใจเสริม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ขอ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เยียวยาและคุ้มครองสิทธิ เพื่อรับประกัน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มั่นคง โดยจะรับ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และ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ผ่านช่องทางเฉพาะ ใน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และศูนย์กัก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ด้ หลังจากนั้น เรื่องที่รับแจ้งจะถูก เสนอเป็นวาระต่อ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ส่งเสริมสิทธิ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อพิจารณาดำเนินการต่อไป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ส่งเสริมสิทธิ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ป็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ร่วมระหว่างภาครัฐและภาคเอกชน ที่จัดตั้งและดำเนินงานมาตั้งแต่ปี 2006 ภายใต้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ด้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วมถึง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และศูนย์กัก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19 แห่ง)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ดังกล่าว มีหน้าที่พิจารณา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การพำนัก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ตาม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 เช่น การเปลี่ยนประเภท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การต่ออ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 การอนุญาตให้ทำกิจกรรมอื่น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เดิม

โดยจะพิจารณาในกรณี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ที่อยู่ระหว่างกระบวนการ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เช่น กรณีการค้ามนุษย์,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หรือมีเหตุผลด้านมนุษยธรร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ช่วง 5 ปีที่ผ่านมา จาก ทั้งหมด 147 กรณี ที่ถูกเสนอเข้าสู่การพิจารณา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ะดับท้องถิ่น พบว่ากรณีส่วนใหญ่ (135 กรณี หรือ 92%) เป็นกรณีที่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รับรู้ระหว่างการปฏิบัติหน้าที่และนำเสนอเข้าสู่การพิจารณา ขณะที่ กรณีที่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รือ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แจ้งร้องเรียนด้วยตนเอง มีเพียงส่วนน้อย (12 กรณี หรือ 8%) เท่านั้น ที่ผ่านมา ไม่มีช่องทางถาวร สำหรับการรับแจ้ง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 จึงมีความเห็นว่าบทบาทด้าน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ยังไม่เพียงพอ และจำเป็นต้อง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แก้ไข

ด้วยเหตุ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จึงได้กำหนด "ผู้พิทักษ์สิทธิของผู้ย้ายถิ่น" (19 คน) ขึ้นใหม่ใน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และศูนย์กัก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อจัดตั้งช่องทาง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รับแจ้ง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ให้เป็นช่องทางถาวร และได้ตัดสินใจ 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ให้สามารถรับ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ผ่านตัวแทน เช่น องค์กรสนับสนุ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ได้ด้ว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ที่ประส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สามารถยื่นคำร้องต่อ "ผู้พิทักษ์สิทธิของผู้ย้ายถิ่น" เพื่อขอให้มี การพิจารณาใ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ะดับท้องถิ่น เกี่ยวกับการอนุญาตต่างๆ 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ได้ด้วย ทั้งนี้ ผู้อำนวยการ 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สาขา) และผู้อำนวยการศูนย์กัก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ะเคารพผลการพิจารณา 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และ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ที่จำเป็นตามผลการพิจารณาดังกล่าว

นอกจากนี้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ถึงความสำคัญของการคุ้มครอง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การส่งเสริมสิทธิของ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ซึ่งคิดเป็นสัดส่วน จำนวนมาก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ประมาณ 2.7 ล้านคน (ประมาณ 32% หรือ 860,000 คน) จึงได้จัดตั้ง 「คณะอนุกรรมการ ด้านสิทธิของ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ภายใ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 โดยประกอบด้วย กรรมการภาคเอกชนที่เป็นผู้เชี่ยวชาญด้านนโยบายเกี่ยวกับ 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 เพื่อเสริมแก้ไขจุดที่ยังไม่สมบูรณ์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ระบุว่า ต่อจากนี้ไปจะยังคงรับฟัง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ที่ประสบ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หรือ 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โดยเฉพาะ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และ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างๆ พร้อมทั้งจะดำเนิน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จริงจังเพื่อ ป้องกัน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และ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เยียวยาผู้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한국-네팔 교육·문화 교류 및 지역협력 확대 기반 마련했다"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현지 문화교류 및 카게슈워리 마노하라시와 MOU 체결

아시아문화연구원(Asian Cultural Center, ACC, 대표이사 정두훈)은 지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네팔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네팔 카트만두 인근의 카게슈워리 마노하라시(Kageshwori Manohara Municipality)와 교육·문화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네팔 현지 문화 교류와 공동체 연구, 그리고 향후 한국과 네팔 간 교육·문화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네팔의 전통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 변화,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 과정 등을 직접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기반 교류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문화연구원 방문단의 네팔 일정은 포카라(Pokhara)에서 열린 구릉(Gurung)족 성인식 초청 참석으로 시작되었다. 구릉족은 네팔을 대표하는 산악 민족 가운데 하나로, 공동체 중심의 전통 문화와 의례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단은 전통 의례 행사에 초청되어 현지 공동체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의례 과정과 문화적 의미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참여와 상징적 의례는 네팔 산악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 결속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어 방문단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로 이동해 현지 사회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네팔에서 해외로 노동 이주를 경험한 뒤 귀환한 노동자들의 생활 현황과 그들이 형성한 지역 공동체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노동 이주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네팔은 노동 이주 비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향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방문단은 카트만두 지역의 불교 사원과 힌두 사원을 방문하여 네팔의 종교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고 종교적 공존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로,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과 문화적 전통은 네팔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 방문단은 사원 방문과 현지 연구자 및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종교와 문화가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2019년 설립된 네팔 현지 ACC 사무실도 방문하여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현지 협력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CC 네팔 사무실은 그동안 한국과 네팔 간 문화 교류와 공동체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문단은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박태영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네팔 간 민간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과 문화 교류, 지역사회 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 간 지속적인 인적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방문단은 카트만두 동북부에 위치한 카게슈워리 마노하라시(Kageshwori Manohara Municipality)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아시아문화연구원과 카게슈워리 마노하라시 간 교육·문화 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카게슈워리 마노하라시는 최근 도시 확장과 함께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지역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추진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협력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과 네팔 지역사회를 잇는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와 지역 협력은 양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네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문화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문화·예술·체육 등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할 '2026년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3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시민 참여 기반의 공공외교 확대와 민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민간 국제교류 사업이다. ▲자매우호도시 등과 연계한 민간교류 ▲문화·공연예술 교류 ▲체육·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다. 총 2000만 원 규모로, 단체당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단체나 동아리가 신청할 수 있다.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swci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yeha25@swci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시민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031-226-3410)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SUWON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새빛세일 페스타 수원

2026. 3. 20. ~ 3. 29. (10일간)



개 막 행 사

일 시 2026. 3. 21. (토) 14:00
장 소 남문 로데오 청소년문화공연장 (팔달로3가 106-2, 행궁동)
행사내용 개막식, 축하공연, 플리마켓, 체험부스

새,세,페 EVENT

새세페 기간(3. 20. ~ 3. 29.) 동안 참여업체 대상
수원페이 사용시 20% 즉시환급 *1인당 2만원 한도, 선착순 지급

새.세.페 행사안내 | 새.세.페 참여신청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Suwo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와 국제교류 활동을 함께 할

2026 수원시 공공외교단 13기 모집공고





「수원시 공공외교단(SCVA)」이란?
SCVA는 Suwon Center's Volunteer Activators의 약자로, **수원시 대학생 국제교류 서포터즈**를 의미합니다. 관내 내·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6. 3. 9.(월) ~ 3. 19.(목)
- 활동기간 2026. 4. 3.(금) ~ 12. 4.(금) 약 8개월간
- 모집인원 16명
- 활동내용 ※ 수료 기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글 참고

수원시 외국인 지역이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연 4회)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블로그, 카드뉴스 등) + 국제교류 행사 운영 지원

지원자격
- 수원시 관내 대학 재학생 또는 거주민(외국인 유학생 포함)
- 한국어 및 영어 의사소통 및 글쓰기 가능자 (외국인의 경우 TOPIK 4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한국어 사용 가능자)
- 외국인과의 만남 등 국제교류 활동에 열의를 가진 자
- 발대식, 수료식 등 주요 연간 일정 참여 가능자

지원방법
- 제출서류 지원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센터 홈페이지(swcic.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QR코드 스캔하여 바로가기 가능)
- 제출방법 이메일(yeha25@swcic.or.kr)

활동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1365 자원봉사 시간 인증
- 수료증 수여 및 활동 우수자 시상
- 센터 국제교류 관련 사업 또는 행사 참가 기회
- 활동자는 센터 해외 방문사업 참가 시 가산점 부여 및 기타 수원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우선 제공

선발일정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❶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3. 9.(월)~3. 19.(목)
❷ 서류전형	3. 20.(금)
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3. 23.(월)
❹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3. 23.(월)~3. 25.(수)
❺ 면접 전형	3. 27.(금)
❻ 최종합격자 발표	3. 30.(월)
❼ 발대식	4. 3.(금)

문 의
유선(031-226-3410) 또는 이메일(yeha25@swcic.or.kr)
※ 지원서 다운로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QR코드 스캔)

도움이 필요할 땐,

수원 새빛돌봄 누구나

연 150만원 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약 307만원 이하), 국가유공자
※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50%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자 자부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 소모품교체/부분수리 • 대청소 • 소독·방역	• 일반식 제공 • 죽식 제공	• 단기 보호 • 반려동물 일시 보호	• 맞춤형 운동재활	• 성인 상담 • 아동·청소년 상담 • 중독관리 상담	• 본인부담금 지원 ※ '26.7월까지 시범운영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에게 도움받기 힘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원시민 누구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수원특례시
신청 · 수원시 동 행정복지센터 · 새빛톡톡 모바일 앱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연 15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수원 새빛돌봄 누구나

생활돌봄			**동행돌봄**		
신체활동 지원	1시간	25,320원	병원 동행	1시간	25,260원
가사활동 지원	1시간	25,320원	일상생활업무 동행	1시간	25,260원
주거안전			**식사지원**		
소모품교체/부분수리	1시간	25,260원	일반식·죽식	1식	11,000원
대청소		상담 후 결정	**재활돌봄**		
소독	1회	100,000원	맞춤형 운동재활	1시간	60,000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단기 보호	1일	74,060원	아동·청소년 상담	1시간	60,000원
반려동물 일시보호	1박	소형견 35,000원	성인·중독관리 상담	1시간	80,000원
		중형견 40,000원	**방문의료**		
		대형견 50,000원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약 50,000원 내외
		※ 추가비용 2만원(이송, 입질)			

※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1. **신청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새빛톡톡 앱
2. **현장방문** — 돌봄필요도 평가 및 돌봄대상 여부 판정
3.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 소득기준 등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4. **서비스 연계, 제공** — 제공기관 연결, 돌봄서비스 제공
5.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 서비스 종결 및 모니터링, 대상자 사후관리 연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꼭! 꼭! 알려주세요

- 건강 이상, 생활고가 있어 보여요.
- 집에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 단전, 단수, 단가스 안내문이 붙여져 있어요.
-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가출 등을 했다고 해요.
- 온돌형 외풀이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 장기 투숙하시는 분이 있어요.
-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 했어요.



이주민 건강관리 협약...협력체계 구축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수원 엠마우스, 이주민 지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와 수원 엠마우스는 10일 장안구보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이주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수원 엠마우스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민사목센터다. 의료진이 참여하는 무료진료 봉사 등 다양한 사목활동을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민 무료 진료 봉사 홍보, 참여자 연계 ▲중증 환자 발견 시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보건소 건강 캠페인을 위한 공간 제공·보건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안구보건소장,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약계층 이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출산·양육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이 알면 도움 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활교육 정보 확인해요~

학생승마체험 참여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학생승마체험'에 참여할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730명을 모집한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 저렴한 비용으로 화성·용인·안산시에 있는 승마시설에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집 인원은 일반승마 620명, 생활승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30명, 재활승마(장애 학생) 80명 등 총 730명이다.

일반승마는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서 신청해야 한다. 체험 비용의 30%인 9만 6000원(22만 4000원 보조)을 내고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다.

생활·재활승마는 3월 20일까지 학교, 관련기관에서 신청자 명단을 접수한 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생활·재활승마는 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존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까지 10회 강습을 받을 수 있고, 회당 강습 시간은 60분(기승 30분) 이상이다. 강습반 학생 수는 10명 내외로 말 1마리당 2명 이하 학생이 배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승마체험 활동을 하며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생 등하교 동행돌봄

수원특례시가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인해 초등 1~2학년 자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하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도 포함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인력이 아동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돌봄 포인트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회(1시간 이내) 1만 6900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지역 주민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출산·육아 건강교실

수원시보건소(권선·팔달)가 3월 18일 오전 10시 팔달구보건소 대강당에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건강교실 '선율로 이어주는 우리 사이'를 개최한다. 수원시 예비·신혼부부와 임신·출산 가정,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음악의 3요소로 풀어보는 소통의 3요소'를 주제로 클래식 기타 라이브 연주와 강의로 진행된다. 음악을 매개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행사다.

부부·가족 상담 전문가인 이병준 강사가 강연한다. ▲클래식 기타 라이브 연주 ▲불협화음을 만드는 네 가지 소통 방식 ▲갈등을 푸는 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권선·팔달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악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임신부터 육아까지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191-0377

이지은 기자

올해는 이주민도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 수원을 방문하세요!

'수원 포유(For U)'...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추진, 세계적 관광도시 첫걸음

올해와 내년은 수원 방문의 해다. 수원시와 관광업계 및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다 함께 선포했다. 지난 2월24일 수원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운 1천500명의 참석자들은 수원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재위 기간 동안 십여 차례 이상 방문할 정도로 정조대왕이 사랑한 도시 수원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수원에 관광 온기 퍼트린다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는 관광지로서 수원화성의 위상을 수원 전역으로 확장해 수원의 미래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장점을 기반으로 케이(K)-컬처를 종합 집약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앞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는 수원화성을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 반열에 올리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하는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집'에 따르면 수원시 화성행궁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최근 10년 중 2016년(5만7천여명)이 최고치였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 효과가 뚜렷했다는 방증이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2025년 글로벌 소셜 데이터 기반 방한 주요국의 한국 여행 분석'에 따르면 수원화성은 서울 이외 관광지 키워드 중 빈도수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축성 220주년을 내세워 문화적 가치를 관광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효과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특히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수원시 관광의 세계화를 이끌 예정이다. 한국방문의해 위원회와 공동 사업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오는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들이 수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도 발굴한다.

◇수원의 다채로운 관광 전략

올해부터 2년간 수원 관광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는 다양한 세부 전략들을 만들어 다듬고 있다. 문화유산과 시설을 앞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수원시 발전을 이끌 관광산업의 기틀을 다듬는다.

첫 번째 전략은 관광 콘텐츠 역량 강화가 꼽힌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단골 촬영지로 손꼽히는 팔달산 회주도로에 분위기를 재현하는 장치들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행궁마을 주민 주도로 진행했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통해 화성행궁의 색다른 묘미를 더하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으로 손꼽히는 치킨과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한복을 주제로 특화한 거리를 조성한다. 대표적인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야깃거리를 더해 수원의 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공공한옥을 활용해 전통미를 경험하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용 태세 개선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핵심 동선 내 시설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원화성 주요 거점과 인근 상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탈거리를 도입한다. 표준 디자인을 적용해 직관적인 관광이 가능하고, 특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무장애 지도,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해외 결제 인프라 구축도 이뤄진다.

◇2026 문화관광 행사 타임라인

수원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수원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을 찾을 수 있도록 신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 기존 행사들도 내실을 강화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인다는 의지다. 계절별로 놓치지 말고 방문해야 할 행사를 소개하니 참고해서 수원 방문의 적기를 찾아보자.

우선 봄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축제들이 열린다. 4월 만석거 새빛축제는 만석거를 둘러싼 만석공원에서 열흘간 봄기운을 전파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좋은 날이 많은 5월에는 수원에서 봄나들이를 저녁까지 이어갈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진다. 5월부터는 화성행궁 야간개장이 시작돼 아름다운 궁궐의 밤이 당신의 방문을 기다리고, 셋째 주 주말에는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연극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온도가 높아져 저녁 활동이 더 즐거워지는 6월부터는 낭만을 즐기기 좋은 행사들이 많다. 6월13일로 예고된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는 푸르게 물든 연무대를 음악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높이는 야행은 오는 8월 진행되니 한여름 수원여행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예술 장르를 가까이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재즈페스티벌과 발레축제 등은 9월에 개최되니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워보자.

무조건 수원을 방문해야 하는 계절은 가을이다. 특히 10월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 미디어아트 등 수원을 대표하는 3대 축제가 수원의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글로벌 관광도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수원시가 수원화성문화제를 케이(K)-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올해는 더욱 화려한 축제를 기대해도 좋다. 모든 주요 행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중순께는 인디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감성을 채우며 마무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이라며 "수원의 문을 세계로 활짝 열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되는 여정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가족센터, 성장하는 엄마 주도적인 엄마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졸업식' 개최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김한나)는 지난 3월 7일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입·졸업식'을 개최하고 졸업생과 입학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입·졸업식은 13기 졸업과 14기 입학을 함께 하며 졸업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수 시흥다문화엄마학교 이사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조국혁신당 시흥시지역위원장, 김진영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장대석 경기도의회 의원, 조현자 시흥시 성평등가족국장, 이윤표 시흥다문화엄마학교 담임교사,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 등 내외빈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가족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졸업식에서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졸업증서가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입학식에서는 입학생 대표의 선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초등교육 과정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주도적인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4기 입학생 대표는 "시흥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엄마인 내가 먼저 배우고 성장하며, 단순히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엄마가 아닌 아이와 함께 배우는 엄마가 되고 싶다."며 "아이가 엄마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는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인열 의장은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배움의 장으로 다문화가정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시흥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31-319-7997

이지은 기자

취약·위기가정에 후원금 전달



2024년부터 시흥시가족센터를 통해 꾸준히 후원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지난 1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김한나)에 시흥시 취약·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관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 다문화, 외국인, 장애 아동 가정, 사랑나눔식당 등에 전달되어 취약·위기가정의 생활비, 의료비, 식료품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하 모 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따뜻한 배려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우리 가족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 또한 이 따뜻한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지훈 목사는 "시흥시가족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전달되고, 이번 후원이 귀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도들과 함께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는 2024년부터 시흥시가족센터를 통해 꾸준히 후원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가족센터는 시흥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등 가족별 상황에 따른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기초학습지원 오리엔테이션

시흥시가족센터, 다문화 학부모 대상 진행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김한나)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6년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테스트 및 상담을 진행해 수업 참여 아동을 선정했으며 2월 12일(목) 참여 아동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다문화·외국인 가정 학령기 자녀를 위해 진행하는 기초학습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과 독서토론, 사회, 기본생활습관교육, 아동특별활동을 지원한다.

2026년 수업은 2월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정왕동 본관과 능곡동 다-가치자람터에서 주 2회씩 진행한다. 센터에서 전문 학습교사가 1:3 소그룹 수업으로 주 2회 한글/국어, 수학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 수준별 맞춤 학습 지도를 한다.

초등학교 생활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본생활습관교육과 미술, 과학, 요리 등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아동 특별활동도 진행한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학교생활 적응방법, 자녀 학습지도 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부모교육특강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학부모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한다.

수업과 교재 모두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070-4160-733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취약위기가족 위한 온열매트 전달

구리제일라이온스클럽, 구리시가족센터에 전달해

구리제일라이온스클럽(회장 정태윤, 한일의료기 대표이사)은 지난 3월 9일 구리시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온열매트 15개를 구리시가족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환절기 추위에 취약한 위기가족들이 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세심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태윤 대표님과 라이온스클럽 회원분들께 감사한다."며 "후원해주신 물품은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구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해요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에 참여해 2026년에도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도 관내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월 1만 1,800원, 연 최대 14만 2,000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지역화폐(모바일)로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리시 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를 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으로, 출생 연도 기준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이다.

신청은 15세 이상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부모나 주 양육자가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경기 민원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31-550-8814 이지은 기자

구리시 집 가까이서 건강관리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존' 5개소에 대해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상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건강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 시민에게는 정밀 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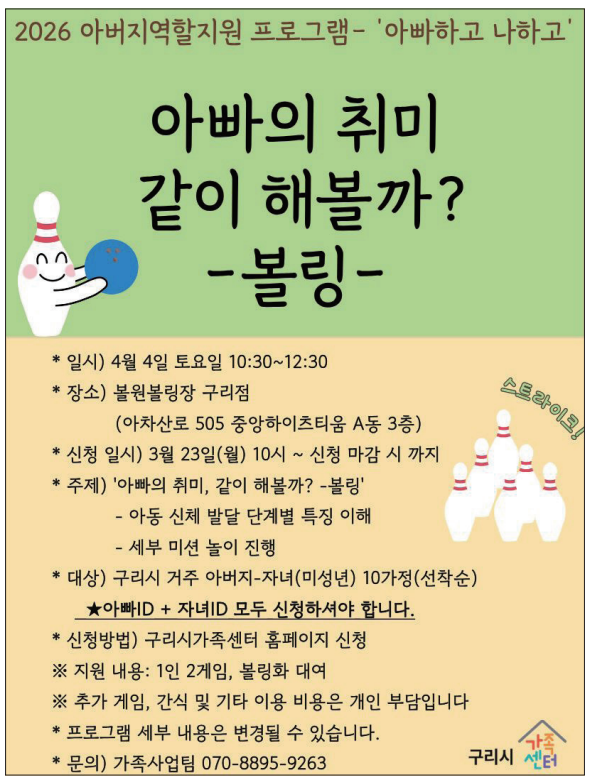
스마트 헬스케어존은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동인건강증진센터 ▲교문건강증진센터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구리전통시장 등 총 5개 권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전용 측정 장비를 활용한 △혈압 △체성분 △스트레스 △신장 등 스마트 자가 건강 측정 서비스와 함께 △데이터 기반 1:1 맞춤 상담 △콜레스테롤 수치 등 5종 검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반기별로 지속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활성화해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는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Nếu cho rằng quyền con người của mình bị xâm phạm, hãy báo cáo với “Cán bộ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di cư” 법무부, 이민자권익보호관 상설 운영

Từ nay,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nếu cho rằng quyền con người của mình bị xâm phạm hãy tìm đến “Cán bộ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di cư” tại Cục (hoặc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Trung tâm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nộp đơn báo cáo.

Bộ Tư pháp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đã quyết định vận hành quầy tiếp nhận tố cáo chuyên trách nhằm bảo đảm việc cư trú ổn đị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iều bào đã bị xâm phạm nhân quyền, như nạn buôn người, bị nợ lương, bị bắt nạt hoặc quấy rối tại nơi làm việc.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do không thông thạo tiếng Hàn nên khó tiếp cận các thủ tục bảo vệ quyền lợi, đồng thời các biện pháp cứu trợ hiệu quả vẫn còn hạn chế.

Vì vậy, Bộ Tư pháp quyết định tăng cường các thủ tục bảo vệ quyền lợi nhằm bảo đảm việc cư trú ổn định bằng cách tiếp nhận các khiếu nại và tố cáo về việc xâm phạm nhân quyề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iều bào tại quầy tiếp nhận chuyên trách của các Cục (hoặc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Trung tâm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trên toàn quốc, sau đó đưa các vụ việc này lên làm nội dung thảo luận tại ‘Hội đồng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Thúc đẩy Quyền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Hội đồng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Thúc đẩy Quyền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là cơ quan thẩm định phối hợp giữa nhà nước và tư nhân, được thành lập và vận hành từ năm 2006 tại Trụ sở Chính sác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cũng như tại các Cục (hoặc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Trung tâm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cộng 19 nơi).

Hội đồng xem xét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việc cư trú tại Hàn Quốc, như thay đổi tư cách lưu trú, gia hạn thời hạn cư trú, cho phép hoạt động ngoài tư cách lưu trú theo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iều bào đang trong quá trình được hỗ trợ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như nạn buôn người, nợ lương hoặc có lý do nhân đạo.

Tuy nhiên, trong tổng số 147 vụ việc được đưa ra xem xét tại các hội đồng địa phương trong 5 năm gần đây, phần lớn (135 vụ, chiếm 92%) là các trường hợp do công chứ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phát hiện và đề xuất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nhiệm vụ, còn các trường hợp do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kiều bào trực tiếp báo cáo chỉ chiếm số ít (12 vụ, 8%).

Trong thời gian qua, do chưa có quầy tiếp nhận thường trực để tiếp nhận tố cáo, nên có ý kiến cho rằng chức năng bảo vệ nhân quyền còn hạn chế và cần được cải thiện.

Vì vậy, Bộ Tư pháp quyết định chỉ định mới (19 người)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di cư tại các Cục (hoặc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ác Trung tâm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đồng thời thiết lập thường trực quầy tiếp nhận tố cáo chuyên trách.

Ngoài ra, cũng cải thiện quy trình để có thể tiếp nhận tố cáo thông qua người đại diện, như các tổ chức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iều bà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iều bào đã trải qua việc bị xâm phạm nhân quyền có thể đề nghị ‘Cán bộ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di cư’ xem xét tại hội đồng địa phương về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việc cấp phép theo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ục trưởng (hoặc Trưởng văn phòng)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và Giám đốc Trung tâm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tôn trọng kết quả thẩm định của hội đồng và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cần thiết.

Ngoài ra, xét đến tầm quan trọng của việc bảo vệ nhân quyền và thúc đẩy quyền lợi của kiều bào, những người chiếm tỷ lệ lớn trong khoảng 2,7 tr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khoảng 32%, tương đương 860.000 người), cơ quan chức năng đã bổ sung, hoàn thiện các điểm còn thiếu bằng cách thành lập mới “Tiểu ban Quyền lợi Kiều bào” trong hội đồng, gồm các ủy viên dân sự là chuyên gia về chính sách dành cho kiều bào.

Bộ Tư pháp cho biết trong thời gian tới sẽ tiếp tục lắng nghe những khó khăn, vướng mắc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à đồng bào kiều bào đã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hoặc bị xâm phạm nhân quyền tại các nơi làm việc như công trường, nhà máy… Đồng thời sẽ tích cực nỗ lực nhằm phòng ngừa các hành vi xâm phạm nhân quyền và hỗ trợ khắc phục, bảo vệ quyền lợi cho các nạn nhân.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구리시가족센터 함께 세계 여성의 날 행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회장 홍연희)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7일 장자호수공원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자호수공원 바닥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궐기한 것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공식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한국에서도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시민들과 나누며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을 위한 응원 엽서를 작성하는 등 양성평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영진),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센터장 김남북), 구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신근화)가 함께 참여해 양성평등 체험활동, 여성 취업 지원, 폭력 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색소폰 연주와 기타 공연, 노래 공연 등 문화공연도 마련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홍연희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장은 “여성의 날의 상징인 빵과 장미를 나눔으로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서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양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 미래 위한 저축!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1,4호점 금융교육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2월 23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4호점에서 관내 거주 2020년~2021년생 8명과 초등 저학년 8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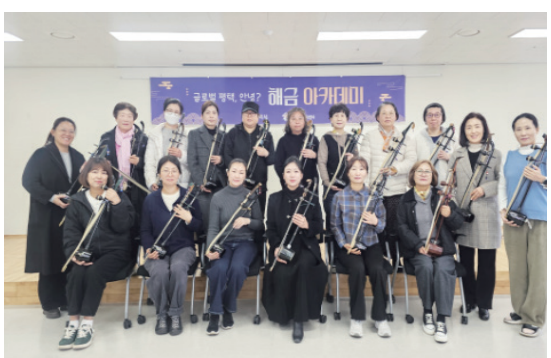
성평등가족부,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랑의 열매, 하트하트 재단과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은 ▲화폐야 반가워 ▲똑똑하게 돈을 써요 ▲차곡차곡 돈을 모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요 ▲엄마와 함께하는 금융놀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애니메이션 시청과 금융 활동북, 보드게임을 통한 놀이수업 등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실제로 금융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올바른 소비 습관을 형성하고 용돈관리와 저축의 개념을 배우며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며 "특별히, 마지막 수업은 보호자와 함께 시장놀이를 하며 생산자, 구매자, 판매자 역할놀이를 통해 시장의 종류와 역할을 인지하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4호점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송하성 기자

'글로벌 평택, 안녕? 해금아카데미'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여성 전통문화로 소통해요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10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결혼이민자와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인 '2026년 글로벌 평택, 안녕? 해금아카데미' 첫 회기를 진행했다.

'글로벌 평택, 안녕? 해금아카데미'는 평택의 문화자원인 해금을 매개로 지역 내 다문화·비다문화 여성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해금 연주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은 대표적인 해금 명인인 지영희 선생의 출생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전통 악기인 해금을 배우며 평택의 문화적 자산과 전통음악의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10일 첫 회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3회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해금 악기 이론과 기본 연주 교육을 비롯해 합주 연습 및 문화 교류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단계적인 연주 교육을 통해 해금 연주 기초를 익히고, 프로그램 과정에서 배운 연주를 지역사회 행사나 소규모 공연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평택시가족센터 관계자는 "해금 연주를 통해 지영희 선생 특유의 풍류를 느끼고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미국 애니라이트스쿨 본교 '평택 장학생' 선발 시작해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이 평택시와 함께 평택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프로그램 '평택 스칼라스(Pyeongtaek Scholars)' 장학생 선발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2030년 개교 예정인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캠퍼스와 연계해 마련된 장학 제도로, 애니 라이트 스쿨과 평택시가 개교 이전부터 평택 지역 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함께 모아 추진하는 것이다. 해외 교육기관이 국내 캠퍼스 개교 준비 단계에서 특정 지역 학생을 본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 스칼라스'는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한 학생 가운데 미국 학제 기준 9학년부터 11학년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국내 기준으로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매년 최대 4명(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며, 애니 라이트 스쿨은 평택 캠퍼스 개교 예정 시점인 2030년까지 매년 평택 지역 학생을 본교 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애니 라이트 스쿨 본교 정규 과정 진학 시 수업료의 50%와 기숙사 비용의 50%가 장학금으로 지원되며, 서울·타코마 왕복 항공권 1회와 국제 바칼로레아(IB) 시험 응시료 전액도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재학 동안 학업 성취도와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 프로그램 접수 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지원 방법은 애니 라이트 스쿨 본교 누리집과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월 둘째 주에는 애니 라이트 스쿨 본교 입학처장이 평택을 방문해 장학 프로그램 사전 지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에서는 교육과정 안내와 질의상담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 국제학교 개교 이전부터 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평택 지역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은 기자

Extension of the period of stay for parents of foreign children studying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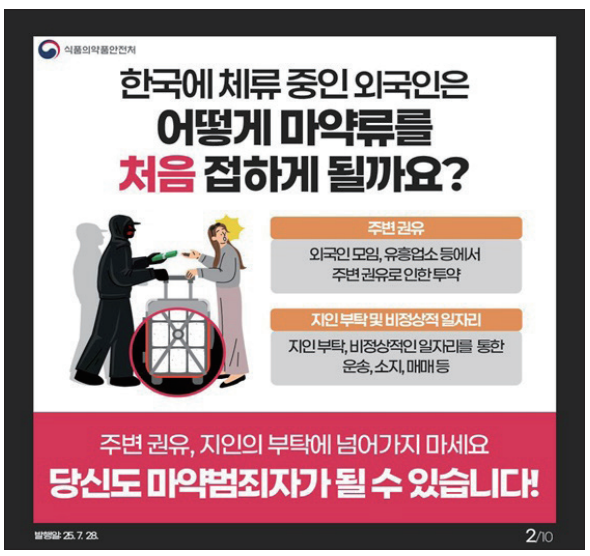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has extended the period of stay for foreign children born in Korea or who entered the country midway through their lives, allowing their parents and guardians to remain in Korea until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24 if they are enrolled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and have legal residency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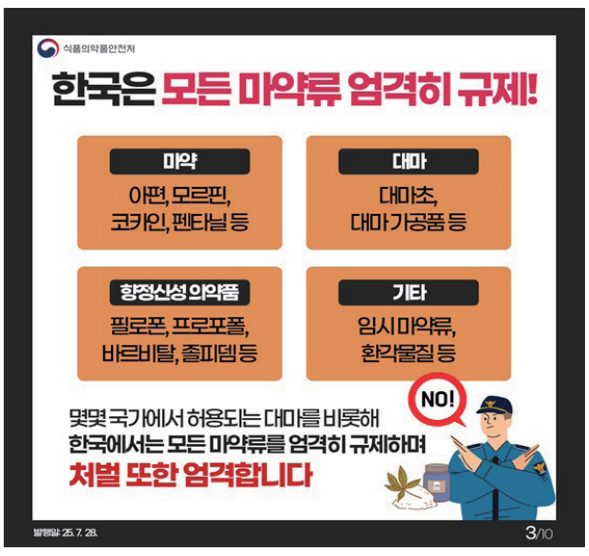
This improvement is limited to cases where undocumented foreign children residing in Korea temporarily obtain legal residency status. This system temporarily grants legal residency status to both foreign children and their parents if they meet all three requirements: ▲ they were born in Korea or entered the country as infants (under age 6), ▲ they have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six years, and ▲ they are enrolled in or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If a child entered Korea after age 6, ▲ they have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 they are enrolled in or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legal residency status is granted. This system will be in effect until March 31, 2028. In this case, foreign children could remain in Korea even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but parents could only stay for one year after the child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reached adulthood (age 19). Therefore, there were many requests to extend the period of parental stay so that children could receive parental protection and support whi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such as attending university or acquiring job skill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improvement measures starting February 26th, judging that it is in the interests of children to extend the period of parental residence until the child's adolescence (age 24) so that the child can not only guarantee the child's right to education but also settle down or study stably after becoming an adult.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stated, "Foreign children who have resided in Korea for extended periods and graduated from high school are members of the community, having developed a linguistic and cultural identity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citizens. We will continue to foster a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ystems that enable...〈중략, 한글 기사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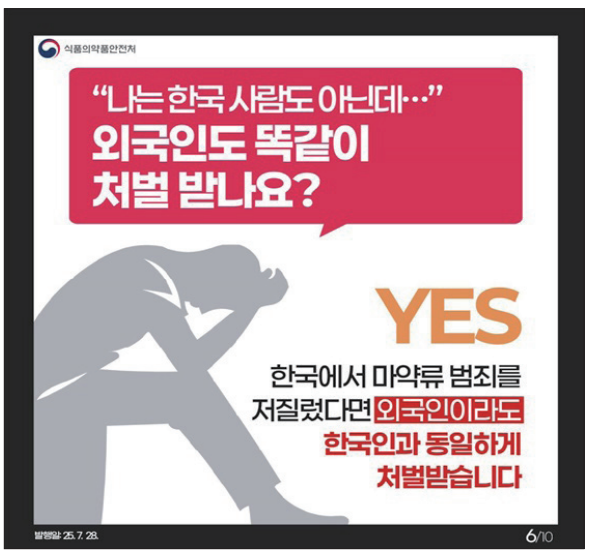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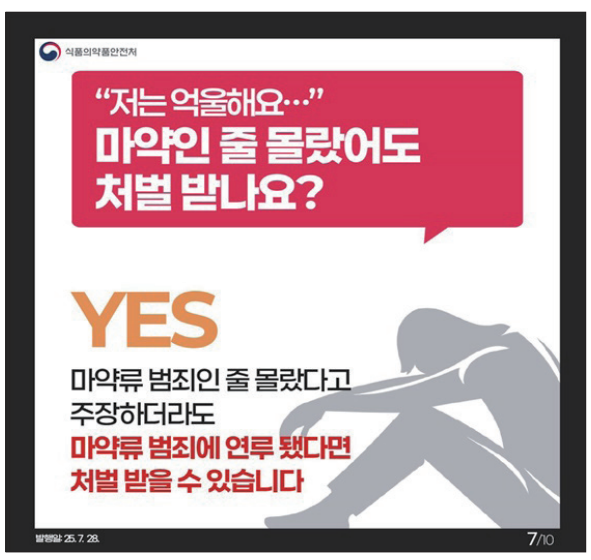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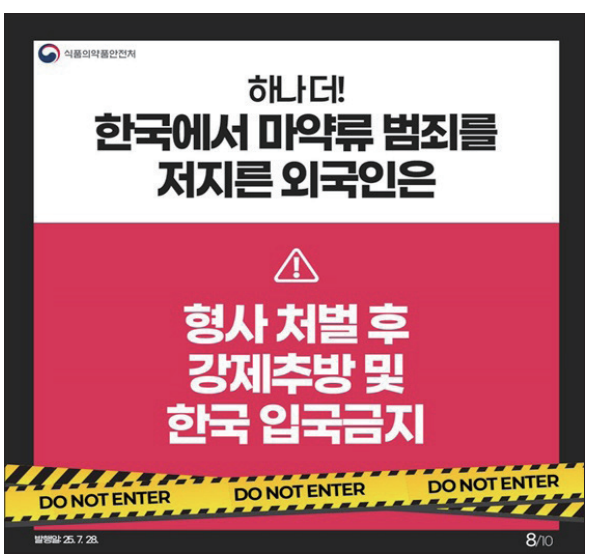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부부교육 + 자녀교육
가족 키움DAY
대상자 모집

1. 4/11(토), 4/25(토) 프로그램 모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신청하세요!
2. 선착순 모집 X 가족구성원이 모두 등어온 경우에만 순번이 인정됩니다!
   마이페이지-가족추가 탭에 가족 등록하신 후 가족대표가 신청
3. 교육 프로그램 불참 시 추후 체험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센터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가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부부 8커플, 자녀 14명(자녀 연령: 5-7세)
- ♥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녀연령 확인
-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가족 부부 모두 환영

일 정

1. 4/11(토) 9:30~12:30
2. 4/25(토) 10:00~11:30 / 12:00~13:30

♥ 4/25(토) 오전, 오후 2그룹 진행(랜덤배정)
♥ 신청시작일 3/16(월) 10:00

내 용

1. 4/11(토) 부부-자기유형 검사지+검사지 해석
   자녀-그림책으로 배우는 AI(미디어컨텐츠 VR)
2. 4/25(토) 부부-그릇만들기(15cm 접시) <도로록 공방-고덕>
   자녀-흙놀이 체험 <고마워 토토-고덕>

장 소

1. 4/11(토) 가족센터 강의실
2. 4/25(토) 각 공방 내(자녀 픽업 후 공방으로 와주세요!)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문의:031-615-3966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2026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수강생 모집

반 별		교육일정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중국어	중급반	3.16(월)~11.6(금) 총70회	매주 월, 금 19:30~20:30	매월 4째주 토요일 *필수참가*
	고급반	3.17(화)~10.24(토) 총70회	매주 화, 목 19:30~20:30	
베트남어	초급반	3.17(화)~10.24(토) 총70회	매주 화, 목 19:00~20:00	
	중급반	3.17(화)~10.24(토) 총70회	매주 화, 목 20:00~21:00	
일본어	초급반	3.16(월)~8.5(수) 총70회	매주 월, 수, 금 17:30~18:30	
중국어 오프라인	초급반	3.16(월)~10.19(월) 총70회	매주 월, 수, 금 17:00~18:00 가족센터(송탄) 108호 강의실	

* 센터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변경될 수도 있다.

모집대상 : - 08년~19년생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학생 (외국인, 재외동포, 난민, 북한이탈가족)
- 부모가족코칭 참가 가능한 다문화가족 한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비 용 : 무료 (교재비 자부담)
신청기간 : 26.02.25(수) ~ 마감시
문 의 : 031) 615-3950 가족교육팀

평택시가족센터

2026년 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사업
AirPop
풍선아트 재능기부 동아리 에어팝
아트연습 전시회

4.28.(TUE) ~ 12.4.(FRI)

모집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8명, 지역주민 2명 (성인반)
*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신청 상황에 따라 국적별 2~3명 모집 예정입니다. / 우선순위: 2025년 풍선아트 동아리 미참여자

활동일시 | 2026.4.28.(화)~2026.12.4.(금) 10:30~12:30 / 월 1~2회

활동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다목적실, 관내 행사장 등

활동내용 | 작품제작활동, 재능기부활동(필참), 전시회(필참) 등
* 자세한 세부일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활 동 비 | 자부담 1인 20,000원(환불 불가)
* 동아리 활동 시작된 이후 중도 탈락하더라도 환불이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신청 바로가기

변화의 중심 가족의 공기 | 평택시 | 평택시가족센터 |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65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생태기 아버지 동아리 활동 풋살 동아리

아빠들의 쉼표,
2026 아버지 풋살 동아리

평택에 사는 아버지들 모여라!
Youth football team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자

4.2.(목)~7.20.(월)
19:30 - 21:30
4개월 8회(월 2회 실시)

새로운 시작, 풋살 동아리원 모집!

모집 대상	관내 자녀를 양육중인 아버지 12명	활동 장소	FC평택타이거 실내구장(평택시 동삭로 455 C동)
활동 내용	풋살 동아리(풋살 강습 및 시합)	참여 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활동 일시	04.02.(목)~07.20.(월) 19:30-21:30	기타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65

* 오리엔테이션 필참 모집시 제작합니다.
* 다음 장의 세부계획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가족센터

신청 바로가기 QR CODE
세부 일정 및 안내사항은 다음 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사업 위촉식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3월 4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2026년 결혼이민자 멘토·멘티사업 '어깨동무, 다온(溫)' 오리엔테이션과 멘토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사업으로 불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사업은 한국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먼저 정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결혼이민자를 돕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평택시는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등 총 10개국 출신 15명의 결혼이민자 멘토를 위촉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민자 멘토는 후배 결혼이민자의 모범이 되어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귀한 분들"이라며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멘토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을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발굴해 가족센터와 연계하고,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031-660-7474

송하성 기자

"지역사회와 나누며 공동체 의식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친화 '모두가족봉사단 발대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2월 28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하고 봉사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총 17가족, 55명의 가족 봉사단원이 참여했으며, 이은미 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 안내, 팀 구성 및 리더 선출, 활동 유의사항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팀 리더를 선출하고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할 팀명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봉사단은 이충분수공원, 함박산중앙공원, 학현근린공원, 배다리생태공원 및 물빛수변공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팀별로 활동하게 된다.

정기 봉사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진행될 예정이며, 환경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을 비롯해 캠페인, 소양교육 및 나눔봉사, 워크숍, 최종평가회 및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은미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자녀에게 나눔과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족봉사단은 가족 단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정화와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31-615-3962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지산초록도서관, 한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 '더그리너스'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은 오산미공군부대 도서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더그리너스(The Greeners)' 9기 운영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더그리너스'는 지역 주민과 원어민 간의 영어 회화 학습 및 양국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9기 과정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회에 걸쳐 지산초록도서관 1층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수강생으로 참여해 세대를 뛰어넘는 배움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오산미공군부대(K-55) 소속 군인 가족인 라라 알마 넬리(Lara Alma Nelly) 강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매 교육을 열정적으로 이끌었으며, 매 회차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은 "원어민과 대화하며 일상적인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이 뜻깊었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강사로 참여한 알마 역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어 기뻤으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24년 5월, 양 도서관이 맺은 '한·미 양국 문화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구축된 탄탄한 협력 체계 덕분이다.

지산초록도서관 관계자는 "미군기지가 위치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통해 한·미 주민들이 만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며 상호 간 독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도서관을 넘어 지역 명소를 원어민과 함께 탐방하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한 만큼, 앞으로도 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사람과 정보를 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평택시립 지산초록도서관(031-8024-7453)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아동이 행복해야 도시도 행복

평택시, 2026년 아동 친화 정책 강화해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6년을 맞아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는 4대 기본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스스로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아동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평택시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자 고덕동 등 젊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도 아동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아동의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신규 개소하여 총 23개소를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터 37개소와 함께 아동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동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학대 아동 보호 및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통한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디지털범죄 예방을 포함하여 관계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시의 공공 책임을 엄중히 수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장에도 힘을 쏟는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만 원으로 인상해 2700여 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영양 불균형 없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며, 양육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들이 차별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립 준비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자립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평택시, 여성·가족·보육사업에 예산 편성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예산 2774억 원을 편성해 여성·가족·보육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여성의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35가구), 스마트도어벨 지원(142가구), 여성안심무인택배함(7개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바로희망팀'을 새로 개소하여 초기 대응부터 상담·사례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기준 평택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5만518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7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서는 6번째 규모이며, 2021년 3만5431명 대비 5년간 42.6% 증가했다.

평택시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응해 「제1차(2024-2028)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100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의 날, 평택아시안컵 등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평택시는 공보육 강화를 통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확충해 총 101개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정기·수시·특별 지도점검과 계절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원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도심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재즈

과천시, '2026 과천재즈피크닉' 5월 개최



과천시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과천시민광장(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2026 과천재즈피크닉'을 개최한다. 과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재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음악 축제로, 외국인주민 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첫날인 5월 1일에는 영국 재즈 기타리스트 톰 올렌도프(Tom Ollendorff)가 개막 무대를 장식한다. 톰 올렌도프는 섬세한 감성의 연주로 유럽 재즈 신에서 주목받는 뮤지션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해 내한 당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업한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올디벗구디(Oldie but Goodie), 안신애 등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재즈 공연을 펼친다. 둘째 날인 5월 2일에는 라퍼커션(Rapercussion), 포레스텟(Forestet), 유발이, 김대호, 이부영, 범프투소울(Bump2Soul) 등이 무대에 오른다. 폐막 공연은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라울 미동(Raul Mid n)이 맡는다. 라울 미동은 포크·재즈·팝·R&B·소울을 넘나드는 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유의 그루브와 깊이 있는 보컬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예매 일정과 공연 시간표 등 세부 정보는 과천문화재단 누리집(www.gcart.or.kr)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4월 한 달 '과학문화 체험행사'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과학의 날' 맞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제59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첨단 과학기술을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메이커 체험, 과학기술 체험전, 과학 공연,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4월 4일에는 시청각실에서 3D펜을 활용해 입체 작품을 만드는 창작 체험 프로그램 '3D펜 메이커톤'이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11일에는 시청각실과 로비에서 과학기술 교구 체험전이 열린다.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12종의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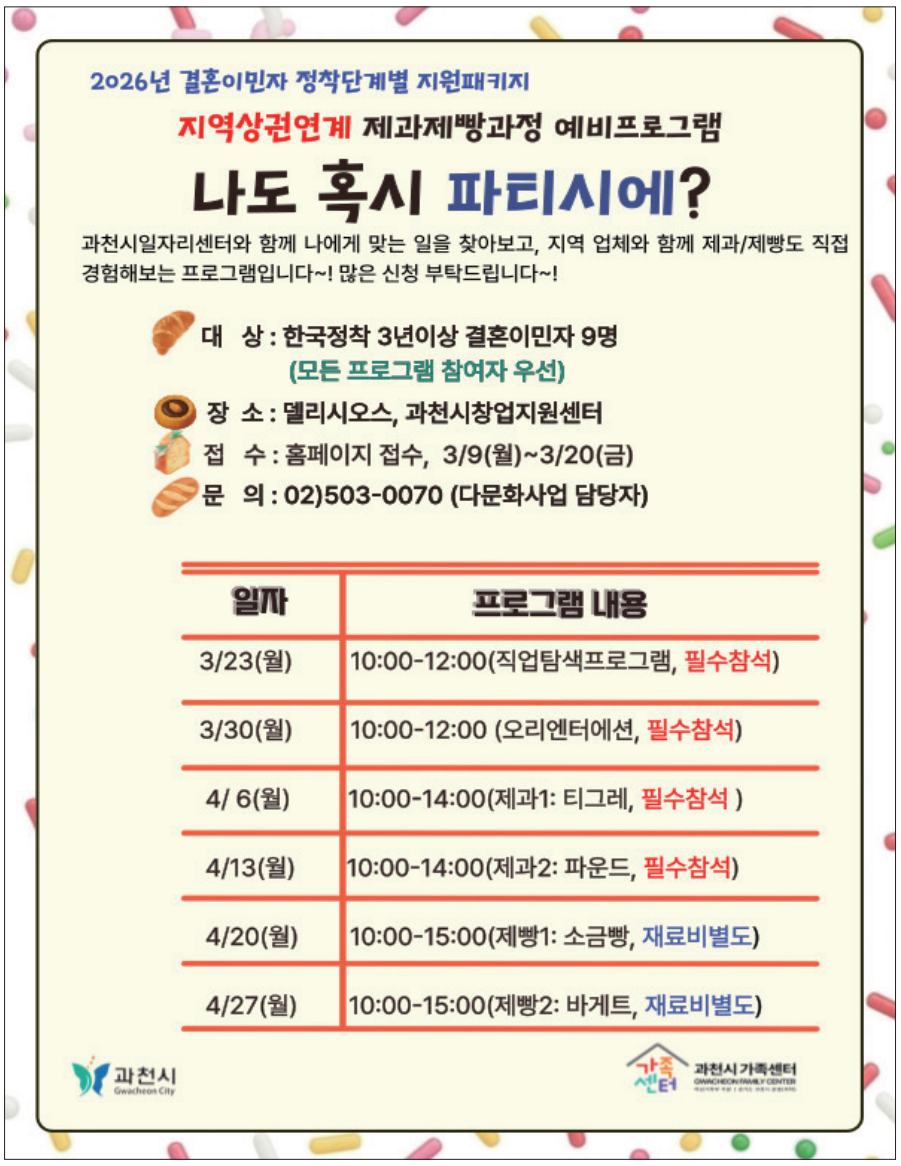
18일에는 연기와 실험을 결합한 과학 특별공연 '사이언스 어드벤처'가 오후 2시와 4시에 진행된다. 25일에는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가 'AI 시대, 물리학자의 질문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사고와 질문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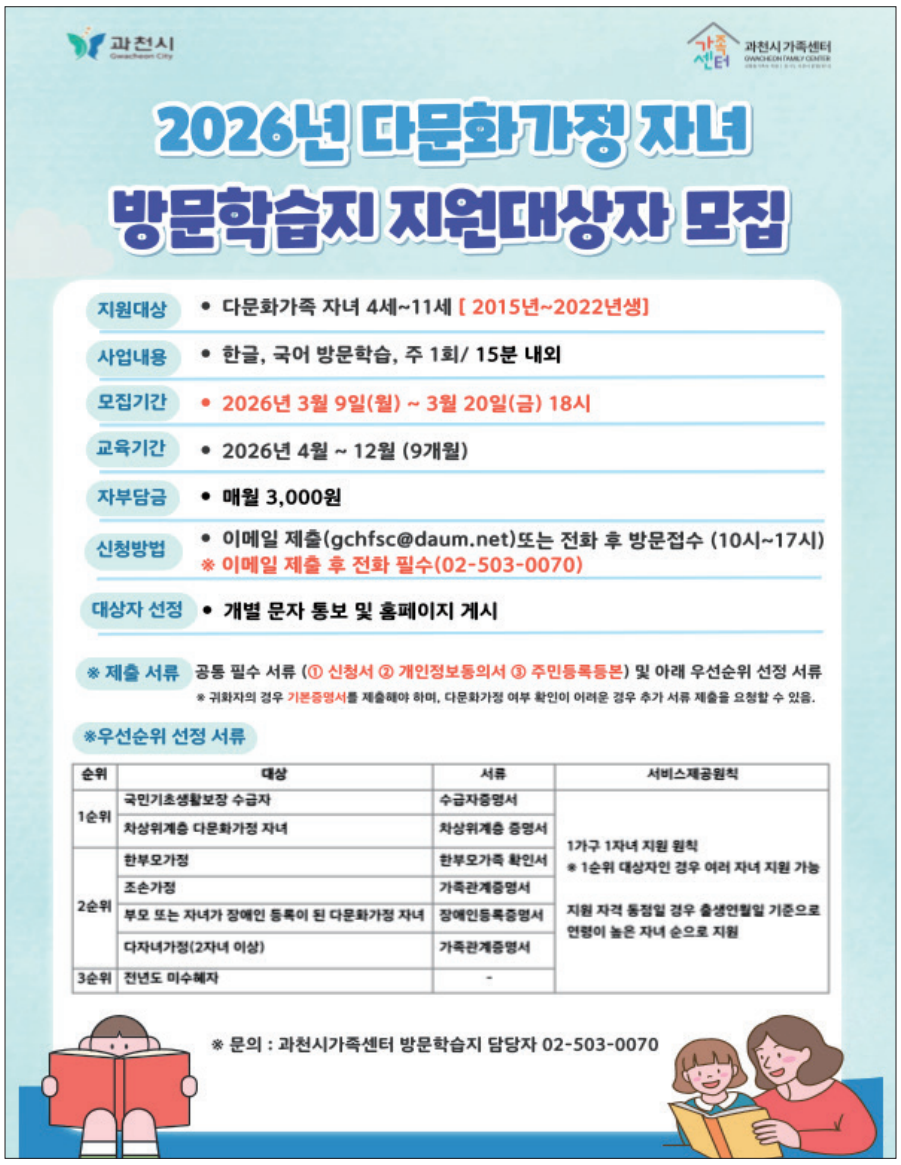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3월 11일부터 과천시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4월 11일에 열리는 과학교구 체험전은 당일 해당 부스에서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학의 날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과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을 확인하거나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02-2150-3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수강생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해요"

광주시가족센터, 2026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2월 24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학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과 학습 수요를 반영해 단계별 정규과정과 다양한 특별과정으로 구성됐다. TOPIK반, 발음교정반, 국적취득준비반 등 실질적인 학습 수요를 반영한 특별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해 '즐거운 한국어 온라인(고급)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줄이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센터는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강생과 강사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과정(TOPIK반, 발음교정반, 국적취득준비반)을 학기제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

개강에 앞서 지난 2월 19일 센터 교육실에서는 '2026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올해 한국어교육 운영 방향과 교육과정 개편 사항, 수강생 관리 및 수업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강사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수희 센터장은 "지난해 수강생과 강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특별과정의 학기제 운영과 온라인 과정 도입 등 교육환경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강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1학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광주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담당자(☎070-4706-3742)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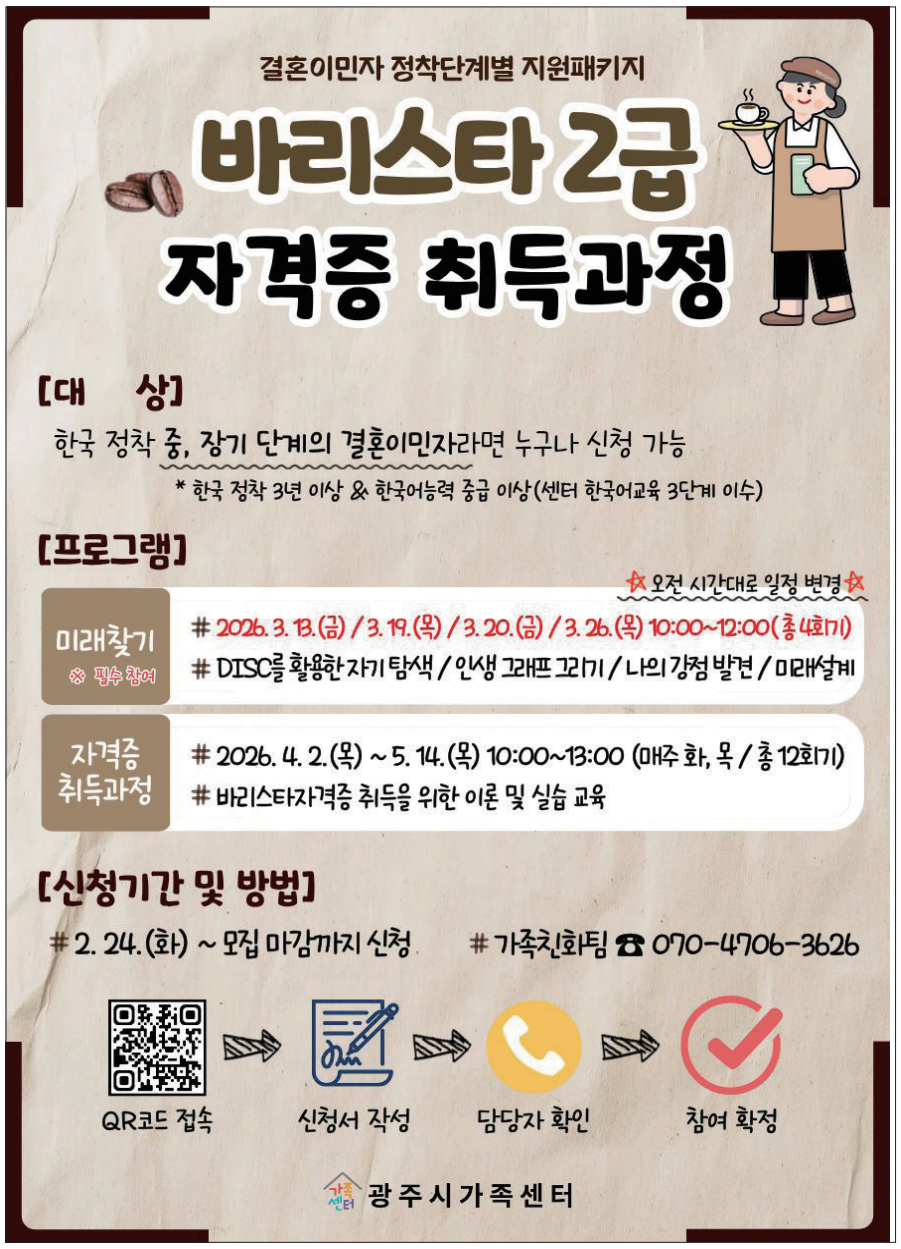
송하성 기자

광주 부모성장 교실 운영해요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양육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부모 성장 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모 성장 교실은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이며 접수 기간은 3월 27일까지다.

이지은 기자



2026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안내문

광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장 소 : 센터 제1교육장, 모두家교육장(배움터, 자람터)

교육단계		일 자	일 시	교육장소	비고
정규과정	기초반	2/24~6/30	매주 화·목 10:00~12:30	모두家교육장 자람터	대면 교육
	즐거운한국어1	2/24~6/30	매주 화·목 10:00~12:30	모두家교육장 배움터	
	즐거운한국어2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모두家교육장 배움터	
	즐거운한국어3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모두家교육장 자람터	
	즐거운한국어 온라인 (고급)	2/24~6/30	매주 화·목 13:00~15:30		온라인
특별과정	발음교정반	4/7~6/30	매주 화·목 10:00~12:00	추후 공지	대면 교육
	토픽반	4/7~6/30	매주 화·목 10:00~12:00		
	국적취득준비반	2/27~7/3	매주 금요일 10:00~12:00	가족센터 2층 교육장	

- 기관 사정으로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사전 신청(전화, 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 교 육 비 : 전액 무료(단, 교재비 본인 부담)
○ 문 의 : 한국어교육 담당자 ☎ 070-4706-3742

※ 온라인 및 특별과정
-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 전 담당자 연락(070-4706-3742) 필수

광주시가족센터

如果认为人权受到侵害，可向"移民权益保护官"举报

法务部将在全国出入境•外国人官署常设外国人权益保护专门窗口…이민자권익보호관 상설

如果你认为在韩国人权受到侵害，请到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和外国人保护所的"移民权益保护官"进行举报。

法务部 部长郑成浩)表示为了保障遭受人身买卖、拖欠工资、职场内欺凌等人权侵害的外国人和同胞的安全滞留，决定设立专门受理举报的窗口。

事实上，许多外国劳动者由于韩语能力有限，很难接触到权利救济程序，而且有效的救济手段也较为不足。

对此，法务部决定在全国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及外国人保护所的专门窗口接受外国人和同胞的苦衷和人权侵害申报，并向"外国人人权保护及权益增进协议会"提交案件，从而强化保障稳定居留的权利救济程序。

"外国人人权保护及权益增进协议会"是从2006年开始由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和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及外国人保护所(19处)设置和运营的民官联合审议机构。协议会主要审议：对人身买卖、拖欠工资等正在进行救济程序的或有人道主义理由的外国人或同胞根据《出入境管理法》变更滞留资格、延长滞留期限、滞留资格外活动许可等在韩居留相关事项。

不过，近5年来提交地方议会审议的147件案件中，大多数(135件，占92%)是由出入境管理公务员在履行职务过程中发现并提交的，而外国人或海外同胞本人直接举报的案件只有12件(8%)。由于此前缺乏可以接受举报的常设窗口，人权保护功能不足，因此建议有必要进行改进。

对此，法务部决定在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及外国人保护所新指定移民权益保护官(19名)，常设受理申报的专门窗口，通过外国人、同胞支援团体等代理人也可以受理申报。

遭受人权侵害的外国人和同胞还可以向移民权益保护官申请，由地方协商会审议与《出入境管理法》相关的许可事项。 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长及外国人保护所长将尊重审议结果并采取必要措施。

另外，考虑到在国内滞留的约270万名的外国人中占多数(约32%，86万名)的同胞的人权保护和权益增进的重要性，在协议会上新设了由同胞政策专家民间委员组成的"同胞权益分科"，完善了不足之处。

法务部表示，今后将继续倾听在产业现场等领域遭受歧视和人权侵害的外国人及海外同胞的困难诉求，并积极努力预防人权侵害行为和提供受害救济。

〈한글 기사 5면〉 파파야스토리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в этом году заседание сети «Дагоннет» по вопросам расширения доступа мигрантов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по улучшению доступа мигрантов к медицинским услугам и обеспечению их права на здоровье.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и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провели 4 февраля первое официаль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 2026 году в рамках сети «Все вместе — к здорово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Дагоннет).

«Дагоннет» — это се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ля мигрантов,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ую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медиц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частные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религиозные и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организации. Она создана для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о случаях мигрант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не системы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и выработки на их основе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числа обращений мигрантов за медицинскими консультациям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рганизовала данную встречу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 част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Заседание включало назначение нового чле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пастырской помощи мигрантам Социального пастырского отдела Архиепархии Сеула Католической церкви Ю Сан Хёка), обмен опытом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 модели «безопасных больниц»,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больницы Кёнгид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ейсов за 2025 год и свободную дискуссию. Участники поделились направлениями работы на текущий год и обсудили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по созда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дел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в Кёнгидо.

Основные темы обсуждения:

▲упорядочивание путей доступа мигрантов к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аспределение ролей между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и поддержки ▲создание устойчивой систе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частным секторами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пример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 2025 год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держка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ов для беременной мигрантки из группы высокого риска совместно с больницей Ансан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а также оплата лечения для 12 мигрант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омощи детям «Зелёный зонт».

В случае с беременной из группы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в местной больнице во время акушер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были выявлены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плода, и требовалась срочная госпитализация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ую клинику....〈중략〉 파파야스토리





경기 살리기 통 큰 할인판매

광주시, 20일부터 2026년 상반기 행사

광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 큰 할인판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되며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판매에는 경안시장, 신현상인회, 남한산성남상인회, 남한산성북상인회, 천진암상인회, 문형상인회,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7개소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상권 내 점포에서 경기지역화폐(종이형 제외)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즉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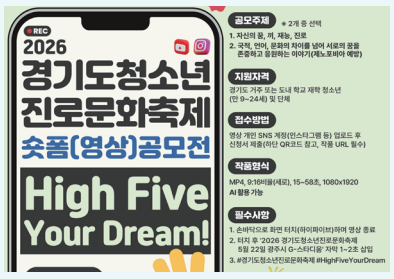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행사 기간 중 총한도는 12만 원이다. 환급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통 큰 할인판매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청소년 숏폼 영상 공모전

경기도와 광주시청소년수련관 함께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5월 22일 개최되는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를 앞두고 숏폼 영상 공모전 'High Five Your Dream!'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이 ▲자신의 꿈·끼·재능·진로 ▲국적·언어·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이야기(외국인 혐오 예방) 중 하나를 주제로 직접 숏폼 영상을 제작·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경기도청소년진로문화축제, #HighFiveYourDream)와 함께 영상을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의 창의적 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도 허용된다. 출품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수상 내용은 경기도지사상 4점, 경기도의회의장상 1점, 광주시장상 1점, 광주시의회의장상 1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5점이다.

우수 작품은 5월 22일 광주시 G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 현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공모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진솔한 이야기가 축제의 시작을 여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세부 사항은 안내 포스터의 정보무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31-779-2430)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광주시, 2026년 2기 185개 강좌 운영해

광주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제2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기에는 광주시 평생학습관, 검천평생학습센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총 185개 강좌가 운영되며 선발된 수강생은 4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0주간 수강하게 된다.

신청은 광주시 평생학습관 '어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마감 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한다.

광주시 평생학습관은 이번 2기부터 야간반을 기존 화요일 단일 운영에서 화·목요일로 확대하고 총 150개 강좌에 1천926명을 모집한다. 주말 온라인 일본어 강좌를 처음 개설해 비대면 학습 과정도 마련했다.

야간반에는 디저트 전문가반과 반려견 수제간식 만들기 과정을 신설했으며 평일 과정으로 라인댄스 자격증·동화구연지도자·스마트폰 지도자 과정을 새롭게 편성했다. 검천평생학습센터는 자연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도시농부의 치유 텃밭 가꾸기, 자연 발효 허브 막걸리·와인 과정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말 원데이 케이크 시리즈와 도마 제작 등 목공·공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쌍령동에서는 파크골프 과정을 6회차로 편성하고 이 중 2회는 파크골프장 현장실습으로 구성해 초보자를 위한 이론·실기 병행 과정으로 마련했다.

곤지암읍 부동산 경·공매 실무, 도척·퇴촌면 어르신 웃음 치료, 경안동 문해교육반(무료)도 지속 운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반 확대와 온라인 강좌 개설, 자격증 과정 신설 등을 통해 시민들의 학습 선택권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양평다문화엄마학교 2기 입학식 개최...선후배간 멘토링 활동도 예고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3월 7일 행복플러스센터에서 '다문화엄마학교 2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국적 결혼이민자 9명의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축하했다.

'다문화엄마학교'는 한마음교육봉사단과 연계해 운영되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학습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녀 학습 지도 역량과 부모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양평군가족센터의 한국어교육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며 한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문화엄마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번 2기 과정에는 라오스, 필리핀,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해 전년도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교육이 결혼이민자들의 학습 의지와 부모 역할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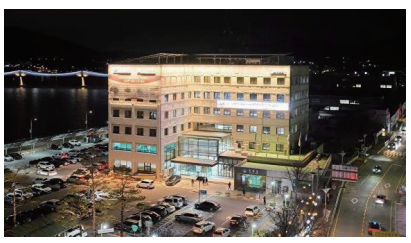
특히 1기 학생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사례가 나와, 엄마학교의 학습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2기 입학식에 1기 졸업생 선배가 참석하여 후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로 신입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번 2기 과정에는 1기 다문화엄마학교 졸업생들이 청강생으로 참여하여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선후배 간 멘토링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해 기초 학습 역량을 갖추고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성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양평군 모든 교육을 한눈에' 보는 통합 플랫폼

양평군 평생학습 포털, 부서·기관별 교육프로그램 통합 게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새롭게 개편한 양평군 평생학습 포털에 관내 평생학습을 희망하는 군민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서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게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양평군 평생학습 누리집에는 양평 매력캠퍼스(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한 6개 부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영유아·어린이·장애인·노인·전 연령 대상 등 대상별, 발달·인문학·취미·건강·자격취득 등 종목 별로 총 544개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며, 수혜 인원은 약 11,303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롭게 개편된 평생학습 누리집은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학습자 편의를 강화한 프로그램 신청·관리 기능 △온·오프라인 학습 정보를 연계한 통합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 단위별 프로그램 목록과 운영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관내에 흩어져 있던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보다 종합적인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양평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자신감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사항은 "양평군 평생학습포털"을 검색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인 부서·기관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정규 한국어 오리엔테이션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3월 6일 2026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정규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교육과정 설명회에 앞서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인권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한눈에 살펴보며 각자의 학습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번 한국어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양평 지역 다문화 구성원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문화 교류와 사회참여 지원

광명시가족센터, '노래로 하나되는 가족합창단'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 14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노래로 하나되는 가족합창단'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 가족합창단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비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노래하며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향후 활동 일정을 안내하고 참여 가족 간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총 13가족, 41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프로그램 안내와 활동 소개를 시작으로 참여 가족 간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및 자기소개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합창단 활동 방향과 연습 일정 등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중국 출신 한 참여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신청하게 됐다. 노래를 통해 다른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고, 다양한 문화의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족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문화 교류와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또는 전화(02-6265-1366)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민 혜택 확대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월 16일부터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광명시는 기존에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왔으나, 고령 인구 증가와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고,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시민(1956. 12. 31. 이전 출생자)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선택 폭도 넓혔다. 기존 생백신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생백신과 사백신 중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 상담에 따라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80여 개소에서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광명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을 지참해야 하며, 의료기관별 백신 보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만 9천610원을 내면 접종할 수 있다. 사백신은 총 2회 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 시기에 7만 7천700원의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02-2680-2561 송하성 기자

'우리동네 맛집·체험을 관광 코스로!' 광명 관광 이끌 '관광두레' 주민공동체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을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관광 관련 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사업이다. 광명시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주도의 관광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여행·숙박·체험·식음·기념품 등 관광 분야에서 신규 창업을 희망하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 개선을 원하는 3인 이상의 지역 주민 공동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최장 5년간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광명시 전담 관광두레 프로듀서(PD)와 협의 후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전담 프로듀서와 협의 방법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관광두레 사업의 취지와 주민사업체 선정 절차,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시만의 색깔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在韩国就读的外国儿童父母的滞留期限扩大 부모 체류기간 확대

法务部，为外国儿童的自立与稳定定居努力营造滞留环境 외국인 아동의 자립·정착 지원

法务部 部长郑成浩)表示，在韩国国内出生或中途入境的外国儿童在国内中小学就读并获得合法滞留资格时，将扩大其父母及监护人滞留期限，可滞留到儿童的青年时期（24岁）。 此次整改方案仅适用于境内滞留未登记外籍儿童限时取得合法滞留资格的情况下。

该制度是指，对于父母属于非法居留的外国儿童▲在韩国出生或婴幼儿(未满6岁)时入境，▲在韩国滞留6年以上▲在韩国小学、初中、高中就读或高中毕业等3项都满足的情况下，将在一定期限内向儿童及其父母同时授予合法居留资格。 ▲6岁以后入境韩国时，满足▲在韩国滞留7年以上▲国内小学、初中、高中在校或高中毕业等3项时，将给予合法的滞留资格。该制度将实行至2028年3月31日。

这种情况下，外国儿童在大学毕业后也可以滞留韩国，但父母在儿童高中毕业或成年(19岁)后只能滞留1年。

很多人认为，在儿童上大学或学习就业技术等自立准备期间，仍需得到父母的保护和支援，因此建议延长父母的滞留时间。

对此，司法部认为，除了保障儿童的教育权外，为保证儿童成年后能够稳定定居或学习，应当将父母的滞留期限延长至儿童的青少年时期(24岁)，并从2月26日起实施改善方案。

法务部长官郑成浩表示:"在韩国长期滞留并高中毕业的外国儿童是在语言、文化上已形成国民认同感的共同体的一员。今后也将持续完善相关制度和居留环境，使这些儿童在成年后能够更好地适应社会，并为国家发展作出贡献。"〈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ของผู้ปกคร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ำลังศึกษา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ดินหน้า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ารพำนัก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พึ่งพาตนเองและ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 จอง ซองโฮ) ระบุว่าในกรณีที่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ซึ่งเกิดในประเทศหรือย้ายเข้าประเทศกลางคัน ที่กำลังศึกษาอยู่ ใ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 มัธยมต้น, หรือมัธยมปล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และได้รับ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ถูกกฎหมายแล้ว จะมีการ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 ของบิดามารดาและผู้ปกครอง 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อยู่กับเด็กได้จนถึงช่วงวัยเยาวชนของเด็ก (อายุ 24 ปี)

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ในครั้งนี้จำกัดเฉพาะกรณีที่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ซึ่ง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โดย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 ได้รับ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 ถูกกฎหมาย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เท่านั้น

มาตรการดังกล่าวเป็นระบบที่มอบ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ถูกกฎหมายให้แก่ทั้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ผู้ปกครอง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 สำหรับเด็กที่มี บิดามารดาเป็นผู้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โดยต้องมีคุณสมบัติครบทั้ง 3 ข้อดังต่อไปนี้ ได้แก่ ▲ เกิดในประเทศ หรือ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ตั้งแต่ช่วงทารกหรือเด็กเล็ก (อายุต่ำกว่า 6 ปี)▲ 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มาแล้วอย่างน้อย 6 ปี▲ กำลังศึกษาอยู่ในโรง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 มัธยมต้น, มัธยมปล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หรือ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ธยมปลายแล้ว

▲ กรณี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หลังอายุ 6 ปี จะต้องมีคุณสมบัติครบทั้ง 3 ข้อ ได้แก่▲ 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มาแล้ว อย่างน้อย 7 ปี

▲ กำลังศึกษาอยู่ในโรงเรีย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 มัธยมต้น, มัธยมปล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หรือ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ธยมปลายแล้ว หากครบทั้ง

3 เงื่อนไขดังกล่าว จะได้รับ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ถูกกฎหมาย มาตรการนี้จะมีผลบังคับใช้จนถึงวันที่ 31 มีนาคม 2028

ในกรณีนี้ 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ต่อได้แม้หลังจาก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แล้ว แต่สำหรับบิดามารดา เดิมทีจะ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อยู่ได้เพียงถึง 1 ปี หลังจากที่เด็ก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ธยมปลาย หรือเมื่อเด็กบรรลุนิติภาวะ (อายุ 19 ปี) เท่านั้น

ด้วยเหตุนี้ จึงมีข้อเสนอแนะจากหลายฝ่ายให้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ของบิดามารดา เพื่อให้เด็ก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จากผู้ปกครอง ในช่วงที่กำลังเตรียมตัวสู่การพึ่งพาตนเอง เช่น ระหว่างกำลังศึกษาใน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หรือกำลังเรียนรู้ทักษะเพื่อการประกอบ อาชี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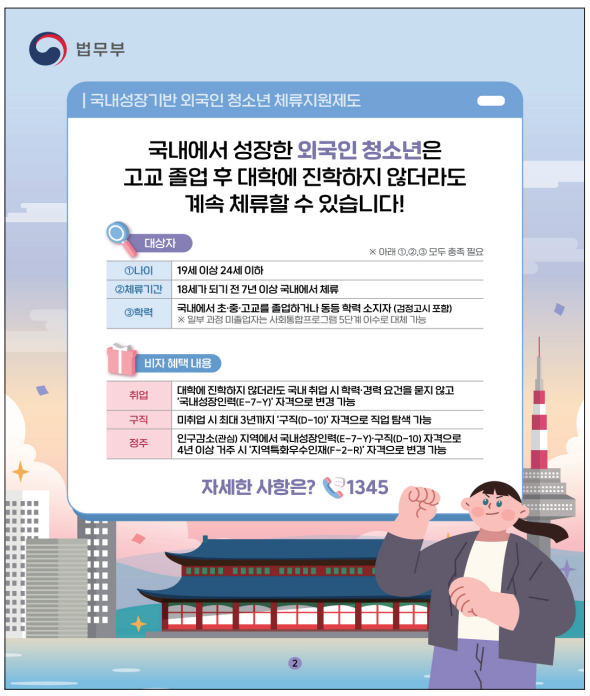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พิจารณาแล้วว่าไม่เพียงแต่การรับรองสิทธิ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ให้แก่เด็กเท่านั้น แต่ยังรวมถึงการที่เด็ก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หรือ ศึกษาต่อ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หลังจากบรรลุนิติภาวะ ดังนั้นการ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พำนักของผู้ปกครองจนถึงช่วงวัยเยาวชนของเด็ก (อายุ 24 ปี) จึงสอดคล้องกับประโยชน์สูงสุดของเด็ก 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เริ่ม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ดังกล่าวตั้งแต่วันที่ 26 กุมภาพันธ์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อง ซองโฮ กล่าวว่า "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มา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และ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จนถึง ระดับมัธยมปลายในเกาหลี ได้ก่อรูปอัตลักษณ์ที่ใกล้เคียงกับ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งในด้านภาษา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 และถือเป็นสมาชิก ส่วนหนึ่งของชุมชนแล้ว เราจะเดินหน้า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และระบบ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เพื่อให้เด็กเหล่านี้สามารถปรับตัวเข้ากับสังคม ได้ดีหลังจากเติบโตเป็นผู้ใหญ่ และมีส่วนร่วมต่อการพัฒนาของประเทศต่อไป"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HỖ TRỢ CT CON EM GĐ ĐVH CỦA TP GWANGMYEONG NĂM 2026

HỖ TRỢ HỌC TẬP CƠ BẢN



Quét mã QR để đăng ký!

HỖ TRỢ HỌC TẬP CƠ BẢN ?

Để nâng cao khả năng học tập và phát triển tốt hơn cho con em GĐ ĐVH, Trung tâm hỗ trợ chương trình học tập cơ bản môn tiếng Văn và Toán.

Thời hạn học tập: tháng 3~ tháng 12/2026
(nghỉ hè tháng 8, nghỉ đông tháng 12）

Đối tượng đăng ký： con gđ đvh tiểu học lớp 1~lớp 6
*(sau đó cần nộp giấy chứng nhận gđ đvh）

Địa điểm giáo dục:

	Tháng 3 ~ tháng 6	Tháng 7 ~ tháng 12
Địa điểm	연서도서관 문화교실1 (광명시 연서일로10)	광명시가족센터 (철산4동청사 예정)

Nội dung giáo dục:
- Môn Văn cơ bản， Toán cơ bản， lĩnh vực xã hội， tiếng hàn con nhập cảnh giữa chừng
- Giáo viên phụ trách dạy theo chia nhóm nhỏ tùy theo năng lực
- Triển khai học tập sáng tạo kết hợp giáo trình kỹ thuật số AI và các hoạt động đặc biệt.

☎ Liên hệ : Phụ trách 박희상 /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2026年光明市多文化家庭子女支援事业

基础学习



请通过 QR码申请!

基础学习是什么？

该活动为学龄期多文化家庭子女提供语文，数学基础学习课程，给予提升基础学习并助力其成长辅导。

基教育日期：2026年3月~12月（预计8月，12月放假）
招 生 对 象：多文化家庭子女小学1年级~6年级
（必须提交多文化家庭证明材料）

教育场所:

	3月~6月	7月~12月
教育场所	연서도서관 문화교실1 (광명시 연서일로10) 连瑞图书馆文化教室1 (位于光明市连瑞一路10号)	광명시가족센터 (철산4동청사 예정) 光明市家庭中心 (预定设在铁山4洞办事处)

教育内容：
- 基础语文，基础数学，社会领域，中途入韩国韩语
- 基础学习专职教师开展分层次、个性化的小组教学
- 运营与AI学科相融合的创造性学习及特别活动

☎咨询：박희상 负责老师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គម្រោងគាំទ្រសម្រាប់កុមា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ឆ្នាំ 2026 ក្រុងកូាំងម្យ៉ុង

ការសិក្សាថ្នាក់មូលដ្ឋាន



ស្កេន QR កូដដើម្បីចុះឈ្មោះ

*ការគាំទ្រការសិក្សាមូលដ្ឋាន គឺអ្វី?

ជាកម្មវិធីជួយបង្រៀនថ្នាក់មូលដ្ឋាន ភាសាកូរ៉េ និងគណិតវិទ្យា ដល់កុមា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ដើម្បីជួយលើកកម្ពស់សមត្ថភាពមូលដ្ឋាន និងជួយឲ្យកុមារវិកចំរើនក្នុងការសិក្សា។

កាលបរិច្ឆេទ: ខែ 3~12 ឆ្នាំ 2026
(ខែ 8, 12 មានគម្រោងសម្រាកវិស្សមុ្រកាលរូវ៉ាក្តៅ)

ម្នុកមានសិទ្ធចូលរួម: កុមារ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ថ្នាក់ទី1~6
*ក្រោយពេលដាក់ពាក្យ ត្រូវផ្ញើឯកសារបញ្ជាក់ថាជាគ្រួសារពហុវប្បធម៌ ជាការចាំបាច់!

ទីតាំងសិក្សា:

	ខែ 3~6	ខែ7~12
ទីតាំង	បណ្ណល័យយ៉ុនស បន្ទប់វប្បធម៌1 (광명시 연서일로10)	មជ្ឈមណ្ឌលគ្រួសារក្រុងកូាំងម្យ៉ុង (តម្រូវការនៅ철산4동청사)

ខ្លឹមសារ:
-រៀនមូលដ្ឋានភាសាកូរ៉េ, មូលដ្ឋានគណិតវិទ្យា, មុខវិជ្ជាសង្គម រួមទាំងថ្នាក់ភាសាកូរ៉េសម្រាប់កុមារដែលទើបចូលមករស់នៅប្រទេសកូរ៉េ
-រៀនជាក្រុមៗ តាមកំរិតសមត្ថភាព ដោយគ្រូជំនាញផ្នែកមូលដ្ឋាន
-មានរៀបចំសកម្មភាពសិក្សាច្នៃប្រឌិតពិសេស ដោយភ្ជាប់ជាមួយបច្ចេកវិទ្យាAI និងមេរៀនឌីជីថល

☎ ការសាកសួរព័ត៌មានបាក់ហុីសាង /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성평등가족부

2026 광명시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

빛을 품은 광명시

기초학습지원



신청은 QR코드 접속!

✪기초학습지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국어, 수학 기본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향상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ㅁ 교육기간 : 2026년 3월~12월 (8월,12월 방학 예정)

ㅁ 모집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초등 1학년 ~ 6학년
※ 추후 다문화 가족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ㅁ 교육장소

	3월~6월	7월~12월
교육장소	연서도서관 문화교실1 (광명시 연서일로10)	광명시가족센터 (철산4동청사 예정)

ㅁ 교육내용
- 기초국어, 기초수학, 사회영역, 중도입국 한국어
- 기초학습 전담교사의 수준별 맞춤형 소그룹 수업
- AI 디지털 교과 연계 창의학습과 특별활동 운영

☎ 문 의 : 박희상 담당자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요"

광명시가족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 진행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 5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은 광명시가족센터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다문화 강사가 지역 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 전통 등을 소개하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에는 총 30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2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가족센터는 선정된 수행기관들과 다문화이해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 수행기관 담당자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의 문화 다양성 이해와 상호 존중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02-6265-1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취업 준비 18~39세 무료 정장 대여해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3월 11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면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18~39세 광명시 거주 청년에게 정장과 넥타이,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소품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장은 1회 이용 시 3박 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대여 업체를 방문하거나 무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정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업체별 운영시간과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대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광명시는 올해 약 900명의 청년에게 면접정장 대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845명의 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 면접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현장 밀착 행정 총력...복지부터 생활 안전까지 민생 집중 점검



박승원 광명시장이 복지, 안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현장을 살피는 '현장 밀착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주요 정책 현장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먹거리 기본사업 '그냥드림' 운영 현장과 지난 1월 2주간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첫 일정으로 박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 중인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식료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을 살피며 "위기가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지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과의 대화에서 고사목 정비 등 산책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철산3동 왕재산공원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공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휴식 공간인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차단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즉각적인 보수와 함께 전반적인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를 지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하안11단지 경로당을 찾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 사항 등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 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관리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최근 광명시는 노후 밥솥 교체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중 도배 작업을 실시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안동 철골주차장 건립 현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상인, 주민들을 만나 주차장 운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박 시장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이 주차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준공까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모든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도 설 의미 배우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해요"

성남시가족센터, 외국인주민 '설맞이 전통놀이마당' 개최...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맞이 전통놀이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가족 약 250명이 참여해 설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가족센터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명절 때마다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맞이 전통놀이마당에서는 공기놀이, 제기차기, 부럼깨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설 풍습과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한복을 입고 세배를 체험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한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는 외국인주민 가정의 새해 복을 기원하는 축원덕담과 문굿을 비롯해 사물놀이와 버나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다. 더불어 각국 자조모임과 캄보디아 유학생회에서도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으며,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이 행사장을 찾아 외국인주민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새해에도 외국인주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외국인주민이 성남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족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며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한국문화를 익히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문영 센터장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외국인주민 여러분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계기로 가족과 이웃이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사회 안에서 선주민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경제적 부담 던다...4월 19일까지 신청 받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운영했다. 이지은 기자

성남 학교 밖 청소년 월 5만원 바우처 지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3억3300만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씩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13~18세(200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생)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앱(chak)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문의 031-729-9170~6 이지은 기자

희망도시 성남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2026년

다문화자녀 리더십 프로그램

1그룹

- 대 상 :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 4~6학년, 10명
- 일 시 : 2026. 4. 18(토) 10:00 - 15:00 (점심제공)
- 장 소 : 센터 가족2강의실(B108호)
- 내 용 : "레고"를 활용하여 숨겨진 감정 표현 및 조별 협력 활동을 통한 레고빌리지 건설!
- 접 수 : 온라인 신청 (접수 확인 전화 필수)
  3월 9일 10시 ~ 선착순 마감
  seongnam.familynet.or.kr>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신청
- 문 의 : 가족정착팀 031-757-9327(내선 4번)

가족센터 성남시가족센터

희망도시 성남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4월 상담대기자 집단상담

마음챙김 힐링클래스

MBTI로 찾는 나의 향기 레시피

- 참여대상 : 2026년 센터 상담실 대기자 10명
- 참여일정 : 4월 25일(토) 10:00~12:00
- 참여장소 :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
- 참여내용 : [1회기-심리검사] MBTI 온라인 검사
  [2회기-집단상담] MBTI로 이해하는 '나'
  [3회기-힐링체험] 향수&핸드크림 만들기

신청안내

- 신청기간 : 3월 24일(화) 10:00 ~ 4월 6일(월) 16:00
  ※ 참여 확정 시, 4월 7일(화) 개별 문자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seongnam.familynet.or.kr (회원가입 필수)
- 문의사항 : 031-756-9327(내선 1)

가족센터 성남시가족센터

희망도시 성남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2026년

방문교육사업 안내

"주 2회, 2시간씩 가정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 중도입국자녀 (만3~12세, 만5세 이상 우선)
1회(40회) 생애주기별 3회 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1회(80회)
1) 임신·출산·영아기 (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2) 유아기 (12개월초과~48개월 이하) 3) 아동기 (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	서비스 내용	1) 인지영역 : 한글지도, 독서코칭, 숙제지도 등 2) 자아·정서·사회성발달 지도 3)문화인식, 정체성확립, 공동체 인식 4) 시민교육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청가능(별도 문의)	유의사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1회(40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센터 예약전화 후 방문 접수
(방문지도사 연결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수)

안내사항 : 판정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형: 중위소득 150% 이하(무상)
- 나형: 중위소득 150% 초과(8회 기준: 76,320원)

문 의 : 가족정착팀 031-757-9327(내선5)

★ 신청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성남시가족센터

희망도시 성남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2026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초기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만3세~13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 지원내역 : 검사비 : 종합심리 및 발달 검사
  치료비 :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
- 접수기간 : 2026년 2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내소상담 진행
  (031-756-9327, 내선2)
- 기타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우리아이심리지원, 발달재활바우처, 꿈e든카드 (치료비 사용) 이용 아동 중복 지원 불가
  *내부 심사를 통해 미선정 될 수 있음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본인부담금 있음

가족센터 성남시가족센터

경제 기초 배우고 진로 이해

성남시가족센터, '미래설계 프로젝트' 진행



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2월 25일 센터 교육실에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미래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기초 지식과 진로 진학 정보를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신의 삶과 직접 연결 지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먼저 오전에는 '사회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경제교육'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익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함께 배웠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소비습관을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평소 지출 패턴을 돌아보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을 배웠다. 더불어 주식과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며 재테크의 기초를 배울 수 있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투자'라는 개념을 쉽고 현실적인 예시로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오후에는 '대학 가기 전, 전공 학과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학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학과 별 필요 역량과 전공 적합성, 대학 졸업 후 진로 현황 등을 알아봤다. 단순히 인기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전공을 찾는 과정에 집중했다.

아울러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며 과목 선택이 곧 진로와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자립 역량과 진로 설계 능력을 동시에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031-756-9327(내선 1번)

송하성 기자

직업 체험하며 꿈을 키워요~

성남시가족센터, 진로탐색 '너의 꿈을 응원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2월 24일, 센터 교육실에서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너의 꿈을 응원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직업체험은 ▲여행가이드 ▲푸드 스타일리스트 ▲프로듀서(PD) 체험으로 구성됐다.

여행가이드 체험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성남의 맛집과 카페,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을 정리하며 내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소개하는 경험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체험에서는 꽃을 활용한 연출과 도넛 위에 과일을 데코레이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색감과 배치를 고민하며 자신만의 감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창의성과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었다.

프로듀서 체험에서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편집하며 콘텐츠 제작 과정을 경험했다. 장면을 연결하고 자막을 넣으며 기획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31-756-9327(내선 1번)

송하성 기자



고장 난 자전거 점검·수리해요

성남시, 11월까지 야탑동 탄천 공터에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성남시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한다.

자전거 정비소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 공터(만나교회 뒤편)에 마련되며, 월·화·목·금·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형 자전거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과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토요일에도 운영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상 정비 항목은 △자전거 바퀴 공기 주입 △오일 보충 △브레이크 유격 조정 △안장 높이 조절 등 간단한 점검과 정비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 교체나 기어 레버 교체처럼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이어 교체나 디스크 브레이크 교체, 생활형 자전거가 아닌 고가 자전거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자전거→자전거 정비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전거 정비소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서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해 학습공간 개선!

전자영 경기도의원, 5개 고등학교 리모델링 위한 교육예산 확보



용인시 관내 5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학습공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에 총 36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인수 수업과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학교들은 교실 리모델링과 학습공간 재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기흥구 상갈동 신갈고등학교에는 12억 4500만 원이 투입돼 교실 리모델링과 함께 소인수 교과 수업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 개교 40년이 넘은 신갈고는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보라고는 1억 6500만 원을 들여 대형 강의실을 리모델링하고, 소인수 교과 수업 공간과 자기주도 학습공간을 조성한다. 신봉고는 8억 2500만 원을 확보해 교과 교실을 확충하고, 복합 학습공간과 교사 연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정고에는 10억 8000만 원이 배정돼 유휴 교실을 다목적 학습공간으로 전환하고, 대규모·다교과 연계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실을 마련한다. 대지고에는 3억 원을 투입해 자기주도 학습공간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학습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에 맞춘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용인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 조성 예산을 확보했다"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선택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초선인 전자영 의원은 탁월한 의정능력으로 지역사회 발전 예산을 상당수 확보해 시선을 끌고 있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참여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3월부터 11월까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3학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 토픽 대비반, 발음·말하기(초급·중급) 등 수업이 진행되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실생활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교육 신청은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가족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가족서비스팀(070-7477-8540)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더 든든해진 '김포시민안전보험' 개시

김포시, 외국인주민도 보장...실질적 보상 확대해 운영

김포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억 5천만 원(2026년 1월말 기준)의 보험금이 지급돼 시민들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 원 ▲6~7주 진단 시 20만 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차등 상향해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에 발맞춰 '자전거사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보장 항목에 더해 비교적 가벼운 부상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상해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최대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히 보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 또는 보험사 콜센터(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1522-3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소통 강화 공식 Instagram 계정 개설

김포시가족센터는 최근 공식 Instagram 계정 @gimpomfc를 개설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행사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스타그램 개설을 통해 센터는 ▲센터 프로그램 및 교육 안내 ▲센터 휴관 및 공지사항 안내 ▲가족지원 사업 및 활동 이야기 ▲지역사회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사진과 영상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가족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젊은 세대와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시민들이 SNS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개설을 통해 시민들이 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프로그램을 더욱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가족지원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의 다양한 소식은 인스타그램 @gimpomfc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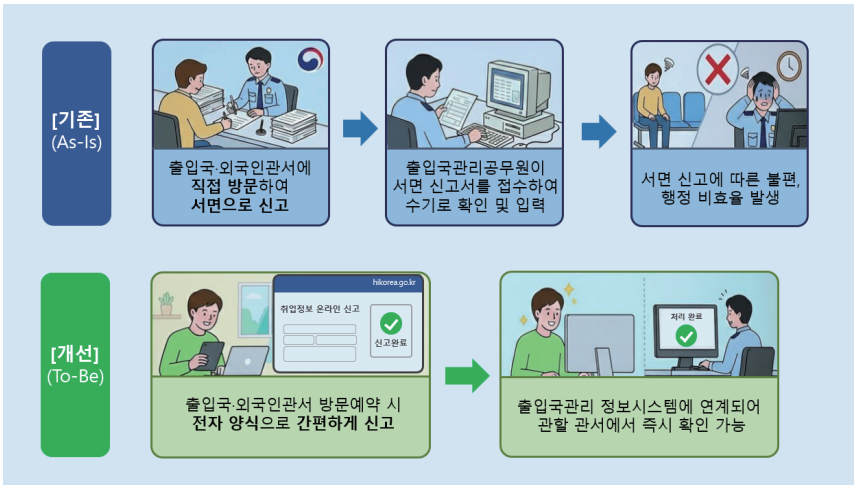
송하성 기자





「外国人就业信息在线申报」制度扩大实施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법무부, 출입국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고...온라인 신고 제도 확대 시행



在韩外国劳动者及居留外国人的行政便利性将进一步提升。

韩国法务部宣布，自2026年1月2日(周五)起，将正式扩大实施「外国人就业信息在线申报制度」。

随着此次制度升级，外国人无需再亲自前往出入境·外国人厅(事务所、办事处)，只需通过线上方式，即可更加便捷、快速地完成就业信息申报。

为什么要升级这项制度?

根据《出入境管理法施行规则》第47条及第49条之2的规定，从事营利活动的外国人必须申报包括职业、行业、收入金额在内的就业信息；一旦相关信息发生变更，须在15日内完成变更申报。但一直以来，就业信息申报主要依赖书面材料和现场办理，手续繁琐、耗时较长等不便持续被反映。为此，法务部对线上申报系统进行了全面优化。

哪些外国人需要申报?

持有以下居留资格、并从事营利活动的外国人，均属于申报对象：教授(E-1)、会话指导(E-2)、研究(E-3)、技术指导(E-4)、专业职业(E-5)、艺术演出(E-6)、特定活动(E-7)、季节劳动(E-8)、非专业就业(E-9)、船员就业(E-10)、居住(F-2)、在外同胞(F-4)、结婚移民(F-6)、访问就业(H-2)、外派任职(D-7)、企业投资(D-8)、贸易经营(D-9)

有哪些新变化?

1. 预约出入境业务时，可同步在线申报 : 在办理居留期延长、居留资格变更等事项并进行出入境机关预约时，可直接在 HiKorea(hikorea.go.kr) 官网同步在线申报本人的就业信息(职业、行业、收入)。

2. 无需预约，也可完成首次或变更申报 : 无论是首次申报就业信息，还是因换工作、收入变化需要进行变更申报，均可通过 HiKorea 官网的电子民愿服务在线办理，无需到现场。

随着新制度的实施，外国人前往出入境机关的次数将明显减少，材料填写、排队等待等行政负担也将大幅降低。

法务部表示，今后将持续推进以外国人为中心的制度改善，在提升民愿便利性的同时，也将对外国人就业信息进行系统化管理与分析，防止对本国就业市场造成不良影响。

外国인 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편의가 한층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취업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개선 배경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취업정보 신고가 주로 서면과 관서 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절차상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온라인 신고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정보 신고 대상 외국인

다음 체류자격 중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주요 개선 내용

1. 출입국 관서 방문예약 시 온라인 신고 :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 예약하는 경우,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과 동시에 본인의 취업정보(직종, 업종, 소득)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없이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가능 : 외국인이 최초로 취업정보를 신고하는 경우나 직장 변경,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관서 방문 부담이 줄어들고,서류 작성과 대기 시간 등 행정 절차상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연언 객원기자









2026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LIFELONG EDUCATION VOUCHER

이용자 모집

공지사항 확인(장애인) 공지사항 확인(일반)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국가-경기도-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6년 3월부터(세부일자 누리집 참조)

[모집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

이용권 유형

구분		대상	지원 인원	사용처
			26,706명	
비장애인	디지털	30세 이상 성인	2,363명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
	일반 (지역특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2,776명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기관
		19~39세 청년*	7,300명	
	노인	65세 이상 노인	1,888명	
장애인		등록장애인	2,379명	

*19~39세 청년 특화 모집은 4월 중순 이후 시행 예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시·군별 지원 규모 / 선정기준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필수 확인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① 비장애인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을 통한 온라인(PC, 모바일)
② 장애인
정부24 혜택알리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및 기초지자체 방문접수

사용기관/강좌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 및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친구 추가

경돈내산? 경기도 돈으로 내 수업 산다!

청년·노인·디지털 이용자 모집

[문의창구]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통합 상담센터 : 1544-6500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www.lllcard.kr/gyeonggi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친구 추가 후 1:1 상담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상담 안내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무료 가족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상담 대상	김포시민(개인 및 가족), 심리검사 무료지원(선착순 50명)
상담 내용	개인문제 및 가족갈등 (개인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상담)
상담 시간	주간상담 : 월~금 10:00~18:00 야간상담 : 화 18:00~21:00 주말상담 : 토 9:30~14:30
상담 방법	주 1회/50분 상담(6회기 무료상담)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대기-상담사연계-대면상담 진행 (대곶센터)
신청 방법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구분/가족상담)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 모두 신청)
문 의	가족사업3팀 031-996-5921

가족센터 김포시가족센터

2026년 교육발전특구 이주배경청소년교육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통역 의뢰 신청 안내문

신청대상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통역지원 (입학 및 학교생활 등)이 필요한 김포 관내 학교, 단체, 기관 등

통역언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뱅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우르두어(파키스탄) 등

운영방식
신청하신 의뢰서 심사 후 통역사를 파견합니다.

운영기간
2026년 2월~12월

접수방법
구글 폼 온라인 신청

문 의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분소)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50번길 24-11
이주배경청소년교육지원팀
070-4113-4608/4610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2026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김포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90일 이상 경과한 등록 체류 외국인
- 2026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이외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지원기간
- 2026년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1. 신청 : 신청서 제출
2. 접수 및 현장조사 : 1. 신청서 접수 2.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
3. 지원검토 :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2. 지원여부 결정
4. 지원 및 통보 : 병원 또는 개인 계좌로 지원비 입금

지원내용
- 생계비 :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긴급 생계 어려움이 있을 시 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83,000	4인	1,994,600
2인	1,286,600	5인	2,324,400
3인	1,644,000	6인	2,580,700

- 의 료 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 필요시(의사 소견서 필수)
  의료실비 : 최대 100만원 출산비 : 최대 70만원
- 장 제 비 :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시 지원 (최대 80만원)

신청방법
- 신청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 031-986-7668
- 서류 : 공통서류 및 지원에 따른 필요 서류 (www.gimpofc.kr 공지사항)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김포시, 교육소외계층에 평생학습 기회 제공

김포시는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일반(19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이며, 500여 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정부24'를 통해, 그 외 평생교육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증받은 후 NH농협 채움카드를 발급받고, 올해 8월 말까지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544-6500), 국가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00-3005) 또는 김포시 교육청소년과(031-980-51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김포시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026년에 출산해 김포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9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1,192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청자의 경우 김포시와 김포축산농협의 협약을 통해 '1만원 축산물 교환권'을 추가로 지급해 산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축산물 교환권은 김포축산농협 파머스마켓(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1927)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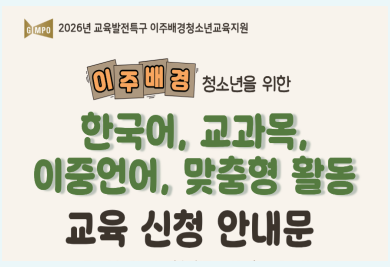
한편, 이재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장려, 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맞춤 지원해요'

김포시, 지역 사회 적응 및 진로 지원



김포시(시장 김병수)와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최영일)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관내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 지원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러시아어, 차크마어, 몽골어, 미얀마어 등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댄스, 미술, 축구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마련해 또래와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통역 서비스로 교육 참여와 상담 과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한다. 낮 시간 학업이나 가정 상황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청소년들도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학, 진로, 가정생활, 심리정서 등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고,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진학 및 입시설명회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김포시민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070-4113-4608/461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김포맛집, 시민 추천 설문조사

김포시, 시민이 뽑는 '2026년도 신규 김포맛집'



김포시는 지역 외식문화 수준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 김포맛집 선정을 위한 시민 추천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김포의 맛집을 추천받아 '2026년도 신규 김포맛집' 선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시민은 큐알코드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라 시민 추천 업소의 순위를 산정하고, 상위 4개소를 김포맛집 본격 평가 대상 업소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맛있다고 느낀 집'이 김포맛집 선정 과정의 첫 단계부터 반영된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시민 중 총 3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4월 3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온라인 설문 조사는 김포 시민이 직접 추천한 맛집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작하는 제도"라며 "시민의 경험과 선택이 김포를 대표하는 맛집을 만들어가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함께 진행해요"

김포시가족센터, 한국어 강사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지난 2월 25일 센터 교육실에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어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한국어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강사의 역할과 학사 운영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혜정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한국어교육을 맡게 된 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책임감 있는 교육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김포시가족센터는 올해 한국어교육 학사일정을 공유하고 수업 운영 방식, 출결 관리 기준, 강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연간 학사 일정과 단계별 수업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강사들이 교육 운영 전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강사들은 "수업 일정표와 학사 일정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전체 교육 운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육 운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실제 수업 준비에 유용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김포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사들이 교육 운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양질의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김포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지정 운영

김병수 시장, 달빛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현장행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을 찾지 않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응급실 대기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시간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및 처방조제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도시 야간정책의 핵심 안전망"이라며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생활 밀착형 야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10일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2023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히즈메디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실과 입원 병동을 두루 살펴보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했다. 히즈메디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입원실 68실, 병상 145병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외국인 위한 통번역서비스

김포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난민 가족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원활한 소통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센터는 중국어와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11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난민가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입국 초기 상담, 교육 과정 안내,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병원 및 공공기관 동행 통역 등이 있으며, 모국 관련 서류 번역과 가정통신문, 기관 의뢰 문서 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임신·출산·양육, 출입국 업무, 센터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4월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프로그램 운영

김포시가족센터는 오는 4월부터 다문화가족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자녀 성장 지원 ▲지역 통합사회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은 공통된 경험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이 모여 한국 생활 적응, 자녀 양육, 가족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운영된다.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단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자신감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통합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회기 활동으로 운영되어 문화 이해 및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김포시가족센터 가족사업2팀(031-996-5920, 5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